



# 교육연합신문



2024년 5월 1일 (수) 제401호 (창간 2009년 1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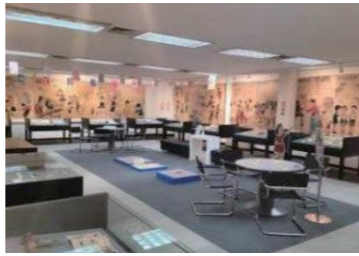
EduYonhap.com

구독 배달안내: 02-541-2000



## 서울 오산중, 사제동행 아침운동 ▶5면

서울 오산중학교는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 약 45분간 교내 대운동장에서 '힘들면 당근을 흔들려라'는 아침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한 아침 운동 습관과 체력 향상을 목표로...



## 기관탐방-교과서 전문 박물관 ▶9면

교과서박물관은 교과서를 주제로 하는 국내 최대이자 유일한 교과서 전문 박물관으로, 2003년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교과서박물관을 설립한 주식회사 미래엔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2세 교육을 위한 사명감과...



## 학교탐방-전남 강진 도암초등학교 ▶16면

지난 1월 100회 졸업생을 배출한 전남 강진 도암초등학교, 현재 6학년 2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농산어촌유학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현재 1학년 1명, 4학년 1명, 6학년 1명, 총 3명의 학생이 경기도 남양주, 경남 김해에서 전학...

# “역사왜곡 日 교과서 검정 통과는 유감”

## 교육부, 즉각적인 시정 촉구 대변인 성명 발표... 한일 관계 발전 역행

대한민국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는 4월 19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그릇된 역사관으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을 추가로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는 대변인 성명을 냈다. 이번 추가로 통과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은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과 더불어,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간 적이 없다는 등의 심각한 왜곡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지난 3월 2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일 양국이 보다 건설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 세대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더욱 심각한 왜곡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합격시킨 것은 무척

입한 행동이며 한일 양국 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과거 한일 우호관계의 기반이 된 미야자와 담화의 근린제국 조항과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향후 교과서 왜곡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미야자와 담화의 근린제국 조항에는 “교과서 집필에 있어서 이웃 아시아 국가들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다룰 경우 국제적 이해와 협조라는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한다”는 내용이, 무라야마 담화에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 의심할 여지 없는 역사적 사실을 경솔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과거사를 경솔히 수용하고 역사를 직시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병선 기자 kbs@

## 에듀TV-교육연합신문, 깊이가 다른 교육 전문 언론 '맞손'

에듀TV 강명준 사장 “교육사업 활성화로 각 기관 발전 인력 양성에 기여하길”

재단법인 스마트교육재단(이사장 감경철, CTS기독교TV 회장) 교육방송 EDUTV(사장 강명준)와 교육연합신문(발행인 한상만이)이 4월 26일 방송과 신문이 손잡고 교육 전문 언론으로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에듀TV 강명준 사장과 교육연합신문 한상만 발행인, 이재원 국장, 하효석 국장, 교육연합신문 김병선 국장, 오화영 국장, 정지호 서울본부장, 고혁진 기자, 신민철 기자가 참석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수익형 온·오프라인 교육 사업 개발 및 공동 운영 ▲교육 뉴스 기획 및 제작 업무의 협력 ▲마케팅 및 홍보



업무의 협력 ▲기타 협력이 필요한 사항 지원 등 교육사업 활성화 협력이다. 에듀TV 강명준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연합신문과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각 기관의 발전과 인력 양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교육방송 EDUTV는 교육부 허가

(재)스마트교육재단이 운영하는 방송국이다. 대한민국의 온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방송을 목표로 희망을 주는 교육, 꿈을 키우는 방송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SK Btv(CH.197번), KT Olleh TV(CH.970번), LG U+TV(CH. 344번), D'LIVE(CH. 224번), LG HelloVision(CH. 234번) 채널을 통해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김병선 기자 kbs@

##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

### 전남교육청, 서포터즈 발대식 갖고 여수박람회장까지 대장정 첫발

전남의 교육가족들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며 전남교육청부터 여수세계박람회장까지 걷기 대장정을 펼친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0일 청사에서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첫걸음을 뒀다. 이날 청사를 출발한 서포터즈는 서해랑길 17코스로 영암 세한대까지 16km 완주에 성공했다. 이번 걷기 활동은 우리나라 외곽을 하나로 연결하는 '코리아 둘레길' 중 서해랑길과 남파랑 구간을 통해 박람회 개최 전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포터즈 걷기는 △27일 진도 용장산성-진도대교(서해랑길 6코스 15.5km) △5월 11일 강진 마량항-장흥 회진(남파랑길 80코스 20.0km) △5월 18일 광양터미널-여수공항(남파랑길 51·52코스 20.4km) △5월 25일 소호트

장-여수세계박람회장(남파랑길 55·54코스 19.4km) 순으로 총 다섯 차례 진행된다. 여수를 향하는 여정 중에는 명량대첩지를 비롯해 강진 마량항, 장흥 회진포, 순천왜성 등 이순신 장군의 주요 활동지가 포함돼 있어, 충무공의 의(義) 정신을 기리는 코스도 포함돼 의미를 더 한다. 특히 서포터즈 활동은 참여를 원하는 전남 교육 가족 누구나 함께할 수 있도록 참여형으로 운영해,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성공 개최의 불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글로벌 미래

교육박람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교육가족들께 감사하다”며 “여수를 향하는 서포터즈의 걸음에 발맞춰,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는 글로벌 미래교육 콘퍼런스·전시·미래교실·문화예술교류 및 축제 등 다섯 개 섹션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장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 하윤수 교육감 “행복한 부산교육 조성”

### 부산교육감, 수영구 민·관 합동 통학 안전 캠페인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4월 25일 오전 8시 10분 망미포스 코너드슈파크리치 앞 교차로에서 개최된 '수영구 민·관 합동 통학 안전 캠페인'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직접 참석했다. 이번 캠페인은 민·관이 함께하는 캠페인을 통한 통학 안전 의식 제고와 유관 기관과의 협업 강화

로 통학로 현안 사항 해결 방안 모색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하 교육감을 비롯해 강오생 연제경찰서장, 안혜영 수영구청 교통행정과장, 수미초, 광안중, 부산배화학교 교장·교감, 김경미 녹색어머니회, 안재열 모범안전자연협회 연제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정현 기자 lijh@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3일 해운대구에 이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구축을 위해 캠페인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들은 등·하교길 아이들이 맞으며 통학로를 꼼꼼히 점검하고 차량 운전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에 나섰다.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안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운행속도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등을 안내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지속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하고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항상 최우선으로 하여 아이 키우기 좋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행복한 부산교육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을 Z-eul Co., Ltd.**

미래의 리더인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건강한 육체와 심신을 위해 (주) 지을의 엠티매트를 활용한 맨발걷기전용 **항톳길**

■ 하천·법면 식생매트/녹화  
■ 토목·조경 공사/자재  
■ 조경식재 수목/잔디/초화류

맨발걷기용 토사 (황토, 마사토, 소성토 등)  
일체형 엠티매트

**식생매트**  
적용: 하천제방, 절·성토 법면, 경사면 외  
특징: 매트형태의 네트에 종자(초화류/잔디류 등)를 부착하여 사면에 설치  
제품: 인장력강화형, 고강도형, 일반형 등

**보행매트**  
적용: 산책로, 보행로, 소규모 광장 등  
특징: 코어(아자)소재로 미끄럼저항계수가 높아 보행 안정성 향상에 매우 좋음  
제품: 일반형, 엠티형, 눈슬림(오철)형 등

**수목보호덮개**  
적용: 수목하부 토사면 보호 외  
특징: 천연(아자)소재로 투수 및 통기성이 우수하여 보행자로부터 수목부를 보호  
제품: 원형, 사각형, 말굽형, 맞춤형 등

본사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 170번길 28 18633  
☎ 010-3016-6611 | 031-831-8141 | 0504-849-6613

연구소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앞실길 16-21 18554  
☎ 070-4866-4858 | z-eul@naver.com

특허청 | 나라장터 | KOSHA | KOSHA

# 전남교육청, 장성 첨단 3지구 중학교 신설

### 교육부 승인 마쳐 2027년 9월 개교 예정... 교육여건 개선 기대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25일 서울에서 열린 정기 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장성 첨단 3지구 (가칭)산동중학교 설립 계획안이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산동중 설립 계획은 전남·광주 공동개발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의 7,574세대의 유망 학생 배치를 위해 지난 정기 1차 심사에 의뢰했다가, 재검토받은 사안을 보완해 이번 심사에서 승인을 마쳤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승인으로 중학교 신설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과학·기술 산업 복합단지 첨단 3지구의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동중학교(가칭)는 첨단3지구 부지 약 1만6000㎡ 면적에 총 사업비 339억 원을 들여 19학급 규모로 세워지며, 2027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된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교 신설계획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해당 지역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적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교육청 행정과는 17개 시·도 교육청이 모인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은 행사 취지에 공감하며 성공적인 박람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장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 교육부, 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 개통

### 시도교육청별 구축 운영돼 온 기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통합 고도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직무대행 신명호)은 4월 23일부터 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https://read365.edunet.net)를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독서로'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구축·운영돼 온 기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고도화한 것이다. 학생의 독서활동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도서 추천 등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작용 중심의 독서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학생은 '독서로'에서 읽고 싶은 책을 검색하여 학교도서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기도서·신작도서·추천도서 등을 확인해 '나의 책장'에 담아 독서 관심 목록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감상평과 별점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독후활동을 사진·영상·텍스트·영상 파일 등으로 업로드해 기록할 수 있고, 교사에게 피드백

도 받을 수 있다. 독서활동 이력은 전학·졸업 등으로 학적이 변동돼도 '독서로-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독서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 있다. 교사는 '독서로'에서 밸런스게임, 독서마라톤 등 독서교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다양한 형태(동아리·학급·교과·학년·학교 등)의 독서교육 활동 그룹을 개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 참여형 독서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학생의 독후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김방선 기자 kbs@

이번 '독서로' 구축으로 17개 시도교육청 간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민간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로 서비스의 안전성과 보안성이 한층 강화됐다. 특히, 모든 시도교육청의 독서 관련 데이터가 표준화돼 한 곳에 집약됨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한 독서교육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개통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험운영(베타 테스트)을 통해 초기 오류 제거 및 기능 점검을 수행 중에 있다. 아울러 상담센터(☎1544-0079)를 운영해 새로운 시스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방선 기자 kbs@

# 학교에도 황톳길 맨발걷기 바람 분다

### (주)지을, 기부형 프로젝트 황톳길 시범사업 추진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학교 맨발걷기 열풍이 영남지역(대구, 경북, 경남)에서 시작해 수도권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학교에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는 맨발걷기용 황톳길(황

토길)을 건강에 소홀하기 쉬운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보급해 온 (주)지을(대표 홍승철)의 기부형 프로젝트 덕택이다. 맨발걷기는 집중력 향상, 정서적 안정 및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다양한 학교 숲 사업을 통해 학교에 작은 규모의 정원들을 설치해 보급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공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맨발로 자연을 체험하면서 걸을 수 있는 맨발걷기용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흙표장으로 조성된 학교 운동장이 있어 활용할 수는 있지만 토사의 임자가 맨발을 걷기에는 거칠고 불규칙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지을에서는 맨발걷기용 황톳길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3월에는 경기도 안양 양명고등학교 총동문회의 도움을 받아 (주)지을이 시공한 맨발걷기 전용 황톳길을 통해 학생들이 좀 더 자연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주)지을 홍승철 대표는 "맨발걷기 전용 황톳길 걷기를 통해 학생들이 땅의 온전한 감촉을 느끼면서 신선대사를 활발하게 해 건강한 체를 가꾸고, 자연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하고 보전할 수 있는 마음이 깃들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밝혔다. 안용섭 기자 ays@

## 교육연접신문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발행·편집인 한승균  
우 135-95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3, 306호(충무로 4가)  
구독문의/대표번호 02-541-2000  
서울본부 1899-0954 인천본부 032-429-1000 충북지사 043-292-0779  
영남본부 054-273-3336 대전지사 1666-0536 울산지사 052-276-0904  
호남본부 0505-629-3366 전북지사 063-272-9090 부산지사 051-711-1444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서울 다 1048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社說

### 세월호 참사 10주기, 급증하는 악성 댓글 집단지성으로 막아내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세월호 추모공간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세월호 침몰 현장에는 노란색 부표가 있었다. 세상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시민들은 떠난 이들을 그리워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하며 통곡으로 초흔했다. 흰 국화꽃을 바다에 던졌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안전은 좁혀져 나아지지 않았다. 서울 이태원에서 159명이 압사한 사건은 세월호 참사의 복사판이었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재난 안전 인식을 조사했다. 응답자의 60%가 우리나라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참사를 기억하지 않는 사회는 결코 안전해질 수 없다. 상식이 아닌 국민은 10년 전 꽃도 피어나지 못한 채 스러져버린 어린 영령들에 대해 지켜주지 못

한 미안함으로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악담과 저주의 말들이 도를 넘고 있다. 혐오에 가까운 악성 댓글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이는 세월호 5주기를 맞이한 2019년부터 시작되었다. 구조나, 해경, 참사 등의 단어들 이 때부터 사라지고 쓰레기, 좌파, 빨갱이, 재앙 등의 단어들 이 그 빈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집단지성을 믿는다. 안전교육에도 박차를 가해 초·중등 교육과정에 필수과목으로 편제하고, 적절한 수행평가도 시행하여 더 이상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의 집단지성이 가진 상식으로 극복해 나 가리라 희망한다.

해질 수 없다. 불편한 진실은 말해야 한다. 기억되어야 재발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 미국도 뉴욕 한복판에 9.11 메모리얼 파크를 만들어 그 의지를 보여주었다. 인류사에 처참한 비극인 유대인 학살 가족을 기억하기 위해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암스테르담에 설치되어 추모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모두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기억하는 것. 그래야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이를 짐짓 외면하거나 정치 논리로 아픈 상처를 덧나게 하고 있다. 참사를 기억하지 않는 사회는 결코 안전해질 수 없다. 상식이 아닌 국민은 10년 전 꽃도 피어나지 못한 채 스러져버린 어린 영령들에 대해 지켜주지 못



# '정현진의 버저비터' 3점 슛 흥대부고 우승

### 제49회 협회장기전국남녀중고농구 영광대회서 경북고에 78-75 승리 거둬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11일간 전남 영광군 영광스피드움 보조체육관에서 열린 제49회 협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 영광대회가 성료됐다.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들을 이곳 영광스피드움에 쏟아부었다. 흥대부고(감독 최윤석, 코치 이무진)는 4월 5일 전남 영광스피드움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정현진의 버저비터 3점 슛에 힘입어 경북고에 78-75의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이날 박정용이 3점 슛 6개를 포함해 22점(7 어시스트)을 올렸고, 송승준이 21점을 지원했다. 손유

창은 13점 (13 어시스트)로 더블 더블을 기록했다.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농구의 묘미인 버저비터로 승부가 갈렸다. 정현진(13점) 선수가 75-75 동점 상황에서 드라마 같은 결승 3점포 버저비터를 쏘으며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다. 제49회 협회장기전국남녀중고농구 영광대회는 남고등부 우승에는 흥대부고, 여고등부 우승에는 숙명여고가 차지했다. 남고등부 최우수 선수에는 박정용(흥대부고), 송윤하(숙명여고)가 차지했다. 한편, 이날 남고등부에서 승리한 흥대부고 이무진 코치는 "70년

의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에 우승의 영광을 안겨준 선수들이 고맙고, 또 선수들에게 응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은 학부모님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힘든 훈련을 소화해낸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백성연 기자 bse@

## 본사사령

서울본부 본부장 정지효  
서울본부 기자 고혁진  
서울본부 기자 신민철  
2024년 5월 1일

# 쉽고 간단하게!

지금 바로 모바일 학생증을 생성해보세요!!



복잡한 시스템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

정확한 본인 인증으로 학교 등 하교 및 수업 출결 확인

도서관, 강의실 등 교내 시설 출입 및 학교 식당 이용 가능

교직원도 사용가능 (출입통제 구역 관리)



**IDTECK**  
Your Security Partner  
Since 1989

RFID & Biometrics Access Control  
**TOTAL SECURITY SOLUTION**



# “우리 아이가 행복해지길 원해요”

### 프라임에지유치원, 학부모 100여 명 대상 적성과미래 이용재 소장 초청 세미나

인천광역시 논현동의 대표적인 유아교육기관인 프라임에지유치원(원장 유재을)은 4월 23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100여 명의 학부모 대상으로 적성과미래 이용재 소장을 초청해 ‘우리 아이가 행복해 지길 원해요’라는 주제로 학부모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학부모 세미나는 아이들의 특성과 부모의 특성에 따른 육아보육 및 유아교육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어 유아전문 교육기관이 학부모의 참여를 통해 아이들과의 공감과 소통의 중요성 인식과 우리 아이들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대표적인 유전자지문적성 검사 연구소인 적성과미래의 지문적성검사는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교육프로그



램으로 지문적성검사를 통해 아이의 선천적인 기질 및 우월한 지능을 파악할 수 있고 특히 아이의 주성향과 보조성향 분석과 자기이해지능, 관련 직업, 성격의 장단점, 스트레스의 원인과 개선방법 등 검사 결과가 도출돼 학부모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사전에 지문검사를 토대로 KGAtest 100여 가지의 지문적성

유형 분류표의 결과물을 받은 학부모들은 실제 아이들의 행동유형과 검사결과에 따른 기질특성을 비교하면서 이용재 소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고민을 해소 하면서도 다른 학부모들의 질의응답에 대한 이용재 소장의 처방책 제시에도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적성과미래 이용재 소장은 “한번의 검사로 평생의 참고자료가 되며, 지능의 우월영역, 인격유형 및 학습유형을 찾아 드려 유아들에게 더없이 좋은 검사로 적성검사 시 주변환경과 부모님,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 답을 적는 아이들의 성향과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유아들의 맹점을 100% 배제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프라임에지유치원 유재을 원장은 “내 아이의 기질에 따라 그에 따른 접근법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번 부모교육을 통해 배우는 시간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몰입력 있게 참여하시고 온 가족 모두가 기질검사를 받고 싶다는 후기가 쏟아져 나오는 유익한 부모교육 시간이었다. 내 아이가 행복해지면 집안이 행복해질 것을 믿으며 가족들의 기질검사로 준비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유연 기자 lyy@

# “외국인 친구에게 탐골공원 어떻게 소개할까?”

### 형지엘리트-국제교류문화진흥원, 5월 19일 '2024 엘리트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형지엘리트(부회장 최준호)와 국제교류문화진흥원(원장 유정희)은 5월 19일 탐골공원에서 ‘2024 엘리트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진행한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탐골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 내 공원이며, 1919년 3월 1일 학생들과 시민들에 의해 3.1운동이 일어났던 곳이다.

당시 학생 대표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팔각정을 중심으로 국보 원각사지 10층 석탑, 보물 원각사비 등의 국가유산과 3.1운동 기념탑, 3.1운동 벽화, 의암 손병희선생 동상, 한용운선생 기념비 등 현충 시설이 남아 있는 곳이다.

‘엘리트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은 우리나라 국가유산을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형지엘리트의 교복 브랜드인 엘리트학생복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4월 28일까지 참가 학생을 모집해 3.1운동의 발상지인 탐골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배우면서 환경정화와 문화재 홍보 활동을 펼친다.

참가 학생은 3시간의 봉사활동 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고, 특히 올해 국가유산지킴이 행사는 국제교류문화진흥원의 문화영어를 배우는 영어반도 개설하는 등 새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형지엘리트는 50여 년간 대한민국 대표 학생복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는 ‘엘리트(elite)’와 국내



여러 대기업의 유니폼을 납품하는 ‘B2B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는 패션 종합기업이다.

국제교류문화진흥원은 역사 인식을 지닌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인 대한민국 국가유산의 가치 개발 및 세계 인과의 소통을 위한 국가유산 외국어 해설 기념 연구, 청소년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특히, 부설 교육원 마리아이야기에서는 2005년부터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문화유산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교류문화진흥원 유정희 원장은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역사가 숨 쉬는 탐골공원에서 형지엘리트가 주최하는 국가유산 자원봉사 활동 참가를 통해 조상들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세계인

들에게 K-Culture를 영어로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형지엘리트 관계자는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국가유산지킴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가유산 지킴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 엘리트 국가유산지킴이” 모집 인원은 초·중·고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총 30명이며, 자세한 사항은 엘리트학생복 공식 블로그 또는 국제교류문화진흥원 부설 교육원 마리아이야기(www.mariestory.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는 4월 30일 개별 연락을 통해 고지한다.

김병성 기자 kbs@

## 제42회 서울시장기 하키대회 성료

### 이진규 서울시하키�협회 “한국 하키 발전 초석 되길”

서울특별시하키훈회(회장 이진규)는 4월 13일 한국체육대학교 하키키경기장에서 제42회 서울특별시장기 하키대회 겸 제105회 전국

체육대회 1차 예선전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차 예선전을 개최했다.

전국체육대회 1차 예선전은 용

산고와 대원고와 경기를 했고, 전국소년체육대회 2차 예선전은 용산중과 신암중이 경기를 치렀다.

이날 중등부 경기는 용산중학교가 신암중학교를 상대로 전반 3골, 후반 3골을 넣어 6대 1 대승을 거뒀다.

용산중 이은서 선수가 후반 2골을 넣었다.

고등부 경기는 용산고등학교와 대원고등학교 경기에서 용산고등학교가 전반 2골을 넣으며 대원고등학교를 상대로 2대 1 승리를 거뒀다.

다음 경기는 5월 18일 제44회 서울협회장기 겸 제105회 전국체전 2차 예선전이 열릴 예정이다.

김병성 기자 kbs@

**HANJI**  
감성을 담은 한지로 문화를 창조한다  
**고감한지 엔페이퍼**  
전통을 잇고 현대를 이끌어 내는 전문 한지 제조 기업

**천년을 함께 해온 한지**  
**천년을 함께 할 한지**

**한지복지**  
친환경 교육환경, 친환경 한지 공간 연출  
폐기 소각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아 방염처리 대상 제외

**한지문구류**  
교육현장의 친환경 체험 소재  
한지 상장, 한지 교재, 한지 포장지

**Portfolio**  
· 2018 남북정상회담장내 전통한지 벽지, 창호지 시공  
·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 사업 한지창호지 제공  
· OO은행 VIP룸 인테리어 시공  
· 전주한옥마을 공예품전시관 명인관 인테리어시공  
· 리안호텔 경주 객실 한지 벽지 시공  
· 전주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한지 제공  
· 관공서 한지 임명장, 상장용지 납품

**고감한지 엔페이퍼**  
한지품질표시제 표시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조달청 제조업 등록 기업 / 한지제조 분야 특허 다수 보유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암 3길 31-1 / Tel : 063) 237-1238 / www.gogamhanji.co.kr

친환경 닻섬유 소재가 담고 있는 편안함  
K컬처를 담아낼 최상의 소재  
최상의 보존성과 자연회귀성의 중성지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중점학교 ‘마음피움학교’ 선정

### 인천하늘중, 인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인천하늘중학교(교장 정경순)가 지난 3월 26일 인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개교 4년차를 맞이한 인천하늘중학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중점학교 ‘마음피움학교’로 선정됨에 따라 영종도내 다양한 교육 자원과 인적·물적 공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천하늘중학교 내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 관리 및 예방 강화를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정신건강 강화 사업으로는 ‘정신건강교육, 자살예방교육, 정신건강 집단프로그램, 정신건강홍보 캠페인’ 등이 진행된다.

인천하늘중 윤재희 상담교사는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정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매달 다양한 행사와 상담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인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폭넓은 학생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경순 교장은 “학생들의 학력신장뿐만 아니라 정서회복 교육을 위해 전교직원이 온마음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 결대로 성장하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

육가족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인천하늘중학교는 Wee클래스 및 대안교실 운영, 학업중단수려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학생 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을 살피고,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하며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용섭 기자 ays@

## 인공지능 코딩 교육의 장 마련

### 강남구립역삼청소년수련관(주)에이릭스, 업무협약 체결



서울 강남구립역삼청소년수련관(관장 황의선)과 ㈜에이릭스(대표 이다인)는 지난 4월 19일 강남구립역삼청소년수련관 3층 메이커스페이스에서 강남구 아동·청소년들의 에듀테크 기반 인공

지능 코딩 교육의 장 마련과 저변 확대를 위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남구립역삼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와 올바른 성장을 돕고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소년·지역주민·사회를 잇는 소통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강남구 지역주민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다.

(주)에이릭스에서는 코딩, 드론, 로봇 등 디지털 교육을 이수한 아이들이 다시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다는 기업이념을 토대로 미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는 다른 교육을 받을 것이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에이릭스가 시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사회에 기여하곤 생각으로 미래 신산업분야의 많은 프로그램 진행으로 청소년들의 미래 교육, 인공지능·코딩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강남구 청소년들의 드론 및 로봇, 코딩교육의 보다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안용섭 기자 ays@

# 서울교육청, 특수교육 여건 개선 새로운 도약

### 조희연 교육감 “장애와 비장애 통합 넘어 공존 향한 공감의 특수교육 위해 노력”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4월 20일 '제44회 장애인 날'을 맞아 모든 교육수요자를 위한, 통합을 넘어 공존을 향한 공감의 서울특수교육을 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특수교육대상학생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수교육기관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계획에 따라 중랑구에는 동진학교(2027년 9월 개교 예정), 성동구에는 성진학교(2029년 3월 개교 예정)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교육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별 특수학급 배치를 최적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진학수요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진학예정자인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조사를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 실시하며, 특수학급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진학 희망교를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실제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를

정확하게 파악해, 장애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단계적으로 넓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확대한 진학수요 조사를 통해 파악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상 진학수요에 맞춰 특수학급 신·증설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수교육 정보 접근성 개선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 발견 및 특수교육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시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고자 특수교육 정보 SNS 채널을 개발해 하반기 개통 예정이다.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교사 교육과정 및 수업나눔 전문가 연수, 저경력 교사 수업성장 연수, 교원 회복력 증진 연수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수 운영을 지속할 예정이다.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중심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성애 맞는 자격증 취득 지원 및 대학생활동 등 현장 중심 진로·직업 체험 교육활동을 확대 예정이다.

제6차 서울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년부터 2027년)에 따라 특수교육 지원 및 전달체계 고도

화를 위한 (가칭)서울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25일에는 '장애인의 날'과 4월 마지막 주 수요일 '세계 안내건의 날'을 기념해 제13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참여단 학생과 교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과 경희궁 공원에서 '함께 걷는 길' 시각장애인 안내견 인식개선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문화행사는 제12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의 다양한 방법의 장애인식개선 활동 정책 제안으로 삼선화재 안내견학교와 협업을 기획했다.

24일에는 서울정진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 서울남부교육지원청,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스네그골프 협회가 함께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특수교육 현장 교원, 교육청 관계자, 운동 전문가, 민간단체들이 서울정진학교에 모여 '생명존중캠페인'과 함께 하는 따뜻한 등교 맞이, '스네그 골프와

함께하는 품키움 챌린지', '현장 간담회'를 운영했다.

서울시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설치된 각급 학교에서 학교별로 장애인권 및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퀴즈대회,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백일장 등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존의 교육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며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존 교육의 의미를 되새겨 앞으로 장애와 비장애의 통합을 넘어 공존을 향한 공감의 특수교육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지효 기자 jjh@



## 서울 오산중, 사제동행 아침운동으로 체력 향상

### '힘들면 당근을 흔들어' 프로그램 진행... 건강한 습관 통해 참여 학생 호평

서울 오산중학교(교장 권하준)는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 약 45분간 교내 대운동장에서 '힘들면 당근을 흔들어'라는 아침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한 아침 운동 습관과 체력 향상을 목표로 했다.

'당근을 흔들어'는 작품 마감 때문에 회사에 불참해 있다고 의심되는 만화가나 일러스트레이터에게 '만약 회사에 납치되었다면 당근을 그려주세요. 구하러 가겠습니다'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인터넷 밈이다. 해당 메시지를 응용해 '운동이 힘들면 당근을 흔들어 도움을 요청하라'는 의미를 담았고, 이와 함께 당근 인형을 준비했다.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교내 북도에서 당근을 외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에 학생들과 교사들은 아침에 운동장에 모여 아침운동을 즐겼고, 기후 상황에 따라 운동 종류와 강도에 변화를 주기도 했다.

꾸준히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해당 프로젝트 일이 경과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도가 증가했다. 학생들은 "체력이 좋아짐을 느꼈다", "아침이 상쾌했다", "선생님과 친밀도가 높아졌다" 등 호평했고, 만족스러움을 나타냈다. 이후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약 90%의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더불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선교사들의 경우 "학생들과의 친밀도가 높아져서 매우 만족했다", "학생들이 잘 따라와 줘서 너무 고마웠다", "학생들과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다" 등의 의견을 남겨 교사와 학생 대부분이 만족하는 결과를 보였다.

오산중학교 권하준 교장은 "이번 '힘들면 당근을 흔들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체력 향상을 목표로 느끼고 건강한 습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길 기대한다"며 "아울러 앞으로도 사제 동행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쉽게 학교에 적응하고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혁진 기자 khj@

## 이정희 교육장 “살고 있는 지역 긍정적 정서 함양”

###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지역연계 교육프로그램 '도 시 락(樂) 운영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은 5월 14일부터 4주간 총 11회에 걸쳐 관내 지역을 탐방하고 지역기관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북부 내 삶의 인문학·도·시·락(樂)'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시·락(樂)'은 '도봉에서 시작하는 즐거움'이라는 의미로 북부 지역 연계 프로그램인 '북부 다락(樂)방(다채로운 즐거움이 있는 지역 탐방)'의 두 번째 프로그램이다. 도봉구 곳곳을 탐방하며 공간에 스며들어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역사·문화를 비롯한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락(樂)방의 효시로서 한층 더 내실 있게 준비했다. 대상을 초등학교 3-6학년으로 확대했으며, 프로그램별 25명 내외의 총 275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는 전년 대비 50% 이상 확대된 규모다.

수업시간에 지역와 교재를 활용하는 3-4학년에게는 교과서 연계 장소를 직접 걸으며 의미를 되뇌일 수 있도록 지역탐방(도봉동, 창동, 방학동, 쌍문동 일대)을 준비했고, 5-6학년에게는 지역기관인 돌리뮤지엄이 학교로 찾아가 웹툰 제작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거리상 돌리뮤지엄을 이용하지 못했던 초등학교 학생들이 기관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모집단위도 많은 학생들이 '도·시·락(樂)'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급단위로 신청을 받는다. 모집은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며, 담당 교사가 서울북부교육지원청으로 직접 신청하게 된다.

이정희 교육장은 “도·시·락(樂)을 통해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학생의 학습공간을 지역사회로 확

대해 살고 싶어 하나돼 미래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고혁진 기자 khj@

## “관계가꿈 꾸러미”로 평화로운 학급 만든다”

### 안윤호 서울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학생 유대감 형성 학교 생활문화 개선 기대”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교육장 안윤호)은 4월 24일 중부교육지원청 별관 1층 강당에서 '중부 관계가꿈 꾸러미, 저경력 교사 생활지도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연수는 '중부 관계가꿈 꾸러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화해와 관계 회복 중심의 회복적 생활교육 내실화를 위해 마련됐다. '중부 관계가꿈 꾸러미'란 중부

학생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며 상호 존중의 회복하며 '관계이음', 학생 참여 중심의 활동을 바탕으로 개인의 성장과 평화로운 학교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관계돌음',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의 특화 프로그램이다.


관내 초·중등 교원 중 교육 경력 5년 미만의 저경력 교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들에게 실질적인 학급 관계 회복 노하우

와 갈등 해결 전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관계조정 전문가로 활동 중인 위지영 강사를 위촉해 '갈등 해결을 통한 평화로운 학급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했다. 무엇보다 이 연수는 관계 회복과 화해에 중점을 두며,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하도록 실제 사례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정지효 기자 jjh@

한원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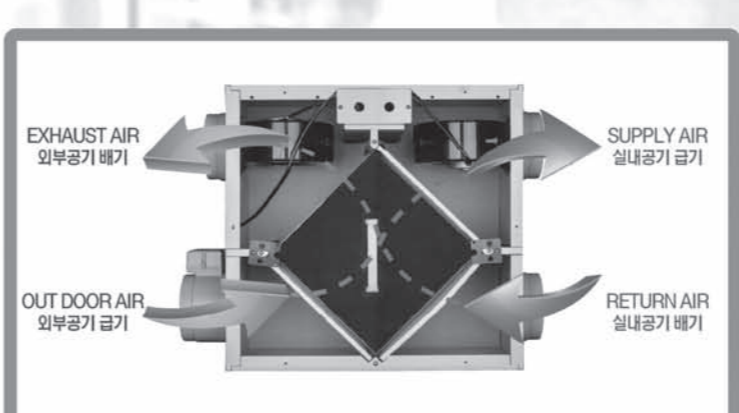
(사) 한국 실내 공기질 관리 기술협회 회원사

# HW SYSTEM

◆ 환기장치 유지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저희 한원시스템은 다수의 학교와 관공서, 다중 이용시설의 환기장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미세먼지 걱정 끝!



**전열교환기(환기장치)**  
필터교체로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선물하세요!

환기장치유지/관리 이제 전문기업에 맡기세요!

**문의전화 : 1577-2036**

## 서울 금산초, 안전한 학교생활 조성

###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서울 금산초등학교(교장 정해원)는 지난 4월 17일 4학년부

6학년까지 금천경찰서 주한혁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서울금산초는 “어린이들이 폭력 없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4학년 1반 학생들은 '사이버 도박 예방을 위한 금천경찰서 챌린지 캠페인'에도 참가했다. 1학년부 3학년까지는 담임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자료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서울 금산초 관계자는 “하하스마일, 행복배움터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이 즐겁게 생활하도록 다 같이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노력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신민철 기자 smc@

# 수원 화흥초, 안전한 학교 통합 돕는다

### ‘어린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발대식... 시민참여단 설명회도 열려

경기도 수원 화흥초등학교(교장 장미자)는 지난 4월 11일 ‘어린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발대식을 갖고 시민참여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화흥초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선정된 수원 특례시 9학개 학교 중 화흥초에서 발대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번 사업은 국토부 예산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들이 보행 중에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스쿨존 구축을 위한 것이다.

시민참여단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국토부 사업에 우리 화흥초가 선정돼 매우 기쁘게 생각



하고, 앱을 사용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장미자 교장은 “우리 화흥초 700여 명 학생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등하교시 스마트폰을 사용해 다양한 사고에

노출돼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은 블루투스 기기를 이용해 스쿨존 일대를 ‘노 스톱비-키즈 존’

으로 구획 후, 스마트폰에 자녀용 앱을 설치한 학생이 해당 구역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진입 및 보행을 자동으로 인식해 사용 중인 기능(앱)을 중지시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신상민 기자 ssm@

# 성남교육지원청 ‘오케스트라 공유학교’ 수업

### 초·중·고 학생 및 동일연령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예술교육 활성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오찬숙)은 4월 13일 수정구에 위치한 경기공유학교 성남캠퍼스에서 ‘성남교육지원청 오케스트라 공유학교’를 시작했다.

지역 구성원과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원도심의 문화예술 교육 요구에 대한 결과이다.

오케스트라 공유학교는 ‘성남다움 공유학교’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관내 초·중·고 학생 및 동일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난 4월 6일 오디션을 통해 단원을 선발했다.

수정구에 위치한 경기공유학교 성남캠퍼스에서 파트별 레슨 및

합주를 통해 화음을 맞추고 7월에는 600석 규모의 성남 아트리움 대극장에서 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성남예술인총연합회 부회장이자 낙생초 학부모인 장경환 국민대 교수가 지휘를 맡았다.

첫 수업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인 트럼펫 연주자는 “늘 혼자 연습

했었는데 이렇게 오케스트라에서 여러 소속의 친구들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좋다. 7월에 있을 공연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오찬숙 교육장은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예술교육”이라며 “오케스트라 공유학교와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 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성남교육지원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상민 기자 ssm@

# 안성 만정중, ‘친구사랑 및 생명존중 주간’ 운영

###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살 예방 통한 공동체 안전 강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소재한 만정중학교(교장 김정권)는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친구사랑 및 생명존중 주간’을 운영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는 학생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친구사랑 행사를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했다.

첫 날에는 3학년을 대상으로 안성교육지원청 위(Wee)센터에서 찾아가는 생명존중 프로그램을 위해 소속 전문상담교사 5명이 학교를 방문해 ‘소나기(소중한 나의 생명 지키기)’ 강의를 통해 자살예방 및 유해 정보에 대한 대처능력을 함양하고, 친구들에게 위로, 격려, 응원 메시지를 통해 생명 존중 감수성을 함양했다.

행사 주간 동안 만정중 위(Wee)클래스에서 위축한 포래상담부 학생들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위(Wee) 도장 깨기’(친구의 위기신호 포착 시 실천행동 다짐, 생명존중 서약, 친구맺기 전라 체크, OX 퀴즈) 등 다양한 활동을 했고, 참



여한 학생들에게 ‘속상한 일은 지우개’, ‘즐거움 일만 써가자 불펜’, ‘열공하기 포스트잇’ 등의 상품을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2학년 학생은 “위기를 경험하게 될 때 1388 청소년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고, 친구와 함께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만정중 채은영 전문상담교사는 “이번 친구사랑 및 생명존중주간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즐거움 추억을 만들면서 긍정적인 정서와 행복감을 고양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에게 정서적 심리방역을 통해 친구사랑 및 생명존중 의식 공감대 형성고 학생 자살 자해를 예방하는 기회가 돼 뜻깊은 행사였다”라고 전했다.

만정중은 위(Wee)클래스와 포래 상담 학생들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계획이다. 신상민 기자 ssm@

# “재미있는 에어슈트 입고 저작권 퀴즈 풀어요”

### 고양 가람중,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맞아 도서관 행사 운영

경기도 고양 가람중학교(교장 김숙영)는 지난 4월 23일 분관 2층 가람서당(학교도서관)에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재미있는 학교도서관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람중학교 이진아 사서교사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기념하여 도서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홍보하고 참여하면서 가람중학교 전교생이 저작권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도서부는 재미있는 모양의 에어슈트를 입고 교내를 돌아다니며 저작권 관련 퀴즈 용지를 배부하고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임을 홍보했고,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에서 저작권 퀴즈를 풀어보고 책을 대출하며 뽑기 추첨



결과에 따라 다양한 간식을 상품으로 받았다.

도서부 3학년 학생은 “저작권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귀여운 에어슈트에 이끌린 많은 친구들이 흥미를 가지고 학교도서관을 방문해서 보람됐다”고 말했다.

가람중학교는 학교도서관(가람서당)에서 주관하는 아침독서 프로그램 및 독서지금통을 비롯한 다양한 독서 인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책과 친해지고, 학교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병선 기자 kbs@

# 검바위초 거점형 아이누리돌봄센터 개소

### 시흥교육지원청, 학교 안 지역거점형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식 성료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기)은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함께 시흥 최초 학교안 지역거점형 다함께 돌봄센터인 ‘검바위초 거점형 아이누리돌봄센터’를 구축하고 4월 22일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시흥교육지원청-검바위초등학교-시흥시청이 지난해 6월 체결한 시흥 내 돌봄 공백 제로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아이누리돌봄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시흥교육지원청은 돌봄 대기수가 급증하는 검바위초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약 2년간 시흥시청, 경기도교육청, 학교와 협력, 소통해 아이누리돌봄센터를 개소했다.

그동안 학교 밖 독립 기관에 설치되던 지역거점형 다함께 돌봄센터를 학교 안에 설치함으로써 검바위초를 거점으로 인근 학교의 학생들을 수용해 지역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교육돌봄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상기 교육장은 “시흥은 젊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 돌봄의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이라며, “이번 검바위초 거점형 아이누리돌봄센터와 같은 지역 협력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흥교육지원청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상민 기자 ssm@

# 수원제일중, 세월호 10주기 추모 행사

### 추모 넘어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학생 중심 활동

경기도 수원제일중학교(교장 하양근)에서는 4월 16일 세월호 10주기 추모 행사가 열려 지역사회 학생 동아리(지도교사 진성민)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세월호 안전교육 연계수업 ▲친구들과 노란 리본 나누기 ▲세월호 기억 노란 리본

열쇠고리 만들기 등 10년 전 그날의 비극을 기억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학생 중심 활동으로 기획됐다.

특히, 3학년 안전교육 연계수업에서는 ‘세월호 기억을 통해 안전학교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이 수업은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고, 안전한 학교와 사회를 만

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수업으로 진행됐다.

수업에 참여한 3학년 정지우 학생은 “더 이상 우리 학교와 사회에 이러한 비극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열심히 참여했다. 작은 일이지만, 안전 수칙 지키기 등 안전 사회를 위한 나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열심히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역사동아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파라코드 끈을 이용한 세월호 노란 리본 만들기 등을 진행했다. 신상민 기자 ssm@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우선구매대상 “우수발명품”  
에듀테크 비즈니스모델 공모전 “최우수상”

**XingQ Table**

조달청 G2B 식별번호  
24823144 / 24860039

**창의사고력 향상 멀티미디어 학습 시스템**

- 창의사고력 향상 콘텐츠 48종
- 창의사고력 향상 테스트
- 안전교육
- 사회성 발달
- 메타인지력, 문제해결력 향상

[ 설치 적용 분야 ]

- 초등 돌봄 교실, 초등 방과후 교실 멀티미디어 놀이 학습
- 키즈 카페, 체험관, 교육관, 과학관, 공공기관 멀티미디어 놀이 학습

www.creple.co.kr

# “인천과학교육 발전 이뤄내자”

## 인천초등과교총, 인천과학교육 리더 대상 연간운영협의회 진행

인천초등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회장 인천첨단초 진재호 교장)는 지난 4월 18일 인천첨단초등학교 지능형과학실에서 인천 과학(발명, 환경, 영재, 창의성, SW, AI 교육 포함)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리더들을 대상으로 비전 선포 및 연간운영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 초등과학교육의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인천초등과교총 사무국장(인천하늘초 교사 변윤섭)의 토크(로이킴) 통기타 사전 축하공연으로 행사를 시작했다.

인천교육과학정보원 사향선 연구관(인천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인천의 초·중등 과학 교원이 함께 화합하여 인천과학교육의 발전을 이뤄내자”고 축하인사를 했다.

기조 강연에서 진재호 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발 맞추어 현장에서도 초등과학교육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모든 교사들이 함께 모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미래 첨단 기기 교실 수업 사례 나눔에서 변윤섭 교사는 교실 속에서 교육과정

과 연계해 첨단기기(360카메라, 3D프린터, 드론, VR(가상현실)& MR(혼합현실)기기, 노트북 & 스마트패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소개해 주며 교사들의 호기심과 적용 의지를 이끌어냈다.

마지막으로 인천초등과교총 단

체별 분과 협의회가 진행되면서 연간 운영의 방향과 세부 업무 방향 등 회원들과 깊은 정보 공유의 장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인천중산초 문민호 교사(인천초등과교총 총무)는 “여러 과학 선배님들을 직접 뵈어 좋았고 현장에서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 리더분들의 열린 협의 모습은 보면서 인천초등과학교육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초등과교총은 올 한해 1박 2일 현장체험형 교원과학워크숍, 학교나눔일기 생태연수, 현장체험형 과학탐사연수, 하반기 성과나눔 워크숍 등 다양한 과학교육 지원 활동을 전개해 인천초등과학교육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앞장설 예정이다.

이유연 기자 lyy@



##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미추홀구와 학교시설 개방 협약

### 인천용현남초등학교 강당 인천인주초등학교 주차장 등 시설 개방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현보)은 4월 15일 인천 미추홀구와 인천용현남초등학교 강당과 인천인주초등학교 주차장 등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며 적극적인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공유경제를 실현하고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협약식에는 심현보 인천남부교육장과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박형원 인천용현남초 교장, 주용석 인천인주초 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인천용현남초는

5월부터 학교 다목적강당 2층을 평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개방할 예정이다.

인천인주초는 올해 여름방학 주차장 공사 완료 이후 학교 부설주차장 40면을 평일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 개방할 계획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전일 개방하지만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출차해야 한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앞서 미추홀구와 협약을 맺고 용종초(2019년), 문학초(2019년), 남인천여중(2020년), 인천기계공고

(2022년), 인하부중(2023년) 등 5개교의 주차장과 백학초(2019년), 인천기계공고(2023년), 송의초(2023년) 등 3개교의 강당을 개방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교통행정과(☎032-880-4808)로, 학교 강당 이용 문의는 미추홀구 체육진흥과(☎032-880-4706)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학교에 적극적인 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꾸준히 안내하고, 관계 지자체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 인천 만성중 학생자치회, 세월호 10주기 추모 주간 운영

### 김철규 교장 “세월호 참사 추모 통해 생명의 존엄과 안전 문화 정착 기대”

‘결대로 자람’ 인천 만성중학교(교장 김철규) 학생자치회는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교내 구령대 주변과 학교숲에서 읽고, 걷고, 쓰며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주간을 운영했다.

만성중 학생자치회는 2행시 짓기, 독서활동, 기념품 제작, 바람개비질 만들기 등 세월호 추모 노란 리본 키링을 만들어 이웃과 공유하고 휴대폰에 소장하고 다니며 추모 의미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인천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추모문화제에 참석해 추모의



내용과 의미를 공유했다.

이번 추모 주간 운영은 ▲교복

을 입을 시민으로서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기회 확대

를 위한 활동으로 운영됐다.

김병선 기자 kbs@

## “일상이 특별한 배움이 되는 읽견쓰 함께해요”

### 도성훈 인천교육감, 부평도서관 가족 북클럽 발대식 참석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4월 20일 부평서여자중학교에서 열린 인천시교육청부평도서관 읽견쓰 가족 북클럽 발대식에 참석했다. 읽견쓰 가족 북클럽은 책을 매개로 독서에 대한 관심과 가족

내 독서 습관을 기르는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대화식 독서하기 ▲필사하고 낭독하기 ▲북클럽에 손님 초대하기 등 8번의 독서미션을 6월까지 수행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

이 읽견쓰 활동을 통해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는 사람, 건강한 신체와 정서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상이 특별한 배움이 되는 읽견쓰 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미

래 역량을 기르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학력에서부터, 돌봄 교실 방과후 프로그램 등 이와 같은 것들도 올해에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작하겠다”며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책을 통해서 즐겁게 자기 지식을 쌓고, 함께 걷기도 하면서 가족 북클럽이 잘 운영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병선 기자 kbs@

## 인천 영종초, 심미적 감성 역량 ‘쑥쑥’

### 전학년 대상 ‘1인1악기 문화예술교육’ 운영



인천 영종초등학교(교장 전정진)는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월부터 전학년 ‘1인1악기 문화예술교육’의 운영을 시작했다.

영종초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학년별 1인 1악기 교육을 통해 졸업 후 6개의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연주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평생 악을 즐길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흥미와 난이도를 고려해 1학년 갈림바, 2학년 가야금, 3학년 사물놀이, 4학년 우쿨렐레, 5학년 모듬북, 6학년 기타로 악기를 선정했고, 연간 학급별 30차시 중 1학기 9차시, 2학기 9차시 총 18차시는 전문강사와 담임교사의 협력수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1인1악기 교육은 악기구입 및

전문강사의 확보면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로 소규모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과 지자체 및 교육청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노력의 결과 50여 학급 1400여 명의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3년째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1인1악기 수업을 받은 전교생이 10월에 걸쳐 1인1악기 발표회에 참가하여 익힌 연주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연주실력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즐겁게 참여하고 배움의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는 전정진 교장의 배려가 반영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영종초등학교의 1인1악기 문화예술교육은 다른 분야의 문화체험 교육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장과 교육공동체의 관심과 노력이 신도시의 대규모 학교에서도 교육 수요자들이 원하는 양질을 특색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유연 기자 lyy@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기준 1.2수준 수학 중등 44.4%, 고등 36.9% (2021년)  
수학포기자 초등 36.5%, 중등 46.2%, 고등 59.7% (사교육력정없는세상통계기준)

## 수학, 기초학력부족 학생도, 선생님도 이제 걱정말아요

수학, 개념만 확실히 알면 문제없어요. 알 것 같아요가 아니라 설명 가능수준까지 하면 돼요

<b>횡단 수학</b>	<b>학생</b>	초등개념동영상548개, 중등개념동영상567개, 고등개념동영상1,000개, 학년별개념교재, 이전학년 선수학습과 현재진도수업으로 개념원칙이해
	<b>교사</b>	영역별개념교재, 학기별교재, 강의용 PPT교재, 플립러닝시스템 수업으로 학생참여학습, 수업준비최소화, 선생님이 편하다.

**횡단수학은**

초등수학 3·4·5·6학년 개념을 수는 수끼리, 도형은 도형끼리, 측정은 측정끼리, 규칙성은 규칙성끼리, 자료와 가능성은 자료와 가능성끼리 묶고

중등수학 1·2·3학년 개념을 수는 수끼리, 식은 식끼리, 방정식은 방정식끼리, 부등식은 부등식끼리, 함수는 함수끼리 묶어 놓어 구성.

**횡단수학 수업 진행 방법**

- 개념은 동영상 듣고 공부하기
- 개념확인 문제 학생이 먼저 풀고 동영상강의나 선생님 강의 듣기
- 뺑구노트 쓰며 1차 복습하기
- 서술하며 2차 복습하기
- PPT로 개념을 선생님처럼 설명해보기

강의를 듣고 나서 설명용 PPT의 화살표를 따라가며 설명 해보면 수학개념을 쉽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7-1 합이 1보다 작은 진분수의 덧셈

초등 강의용PPT

모르면알때까지 ! 알면설명알때까지 ! 설명하면 활용알때까지 !

<https://www.transmath.co.kr>  
<https://cafe.naver.com/godmathstudy>

상

담

070-8291-9670

010-3309-6924



**조달청 실내 LED전광판 납품건수 1 위!**

# LED전광판 전문기업 주식회사 케이시스

## “ 학교LED전광판 · LED현수막 · 스탠드전광판 ”

✓ 국내최초 안내전광판 ‘조달청 우수·혁신제품’ 지정

✓ 공공기관·관공서·학교 ‘전국 900건 이상 구축’



여의도중학교



한국해양마이스터고등학교



온양한울중고등학교



송의여자고등학교



삼일고등학교



동아고등학교



동래원예고등학교



진양고등학교



대평초등학교



포항동해중학교



서울당중초등학교



경기스마트고등학교



신명고등학교



경남여자고등학교



백양초등학교



해운대중학교



서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익로 282 평촌 금강펜테리움IT타워 B동 B110호  
 부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356번길 17, 더케이타워  
 광주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10 마루힐IBC지식산업센터 A동 606호  
 제주 | 제주시특별자치도 제주시 서문로33

문의 1600 - 6187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록제품



교과서의 추억과 현재, 미래가 있는 국내 유일의 교과서 전문 박물관

# 교과서박물관서 '철이와 영이'를 만나다



김동래 미래엔교과서박물관장 (전 인천강화교육장)

교과서박물관(관장 김동래)은 교과서를 주제로 하는 국내 최대이자 유일한 교과서 전문 박물관으로, 2003년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교과서박물관을 설립한 주식회사 미래엔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2세 교육을 위한 사명감과 '교육입국(教育立國)', '실업교육(實業教育)', '출판보국(出版報國)'의 이념으로 창립돼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교육과 그 궤적을 같이하면서 교과서를 만드는 일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 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오고 있다.

1948년 창립 이래 76년이라는 유구한 세월 동안 교과서를 만들어 온 미래엔의 노하우와 철학을 바탕으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과용 도서를 정성껏 수집하고 정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통해 세대를 초월하고 통합하며, 교과서 연구자들의 뜻있는 연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설립됐다.

### ■ 교과용 도서를 보관하고 있는 수장고

교과서박물관의 주요 역할은 콘텐츠, 전시, 연구, 교육의 네 가지 방향에서 이뤄지는데 콘텐츠 분야는 국내외 교과용 도서 및 교육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교과서 관련 정보 인프라 및 교과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이다.

전시 분야는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교과서박물관 보유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데 디지털 매체 등 각종 방법을 활용해 전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교과과정과 교과용 도서를 심층 연구하고 교과용 도서 연구자들에게도 다양하고 심도 깊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 분야는 교육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유·초·중·고등학생,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교과서박물관은 총 5353평의 넓은 광

장과 부지 위에 총 1023평의 2층으로 된 건물로 이뤄져 있다. 1층에는 두 개의 전시관과 수장고, 부속시설들이 들어서 있으며, 2층에는 2개의 전시관과 수장고, 세미나실, 회의실, 휴게실 등의 다양한 시설들로 구성돼 있다.

교과서박물관의 소장 자료는 교과용 도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과용 도서, 즉 특수학교, 전문계 교과서를 포함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는 대략 16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외국 교과서 11개국 4천여 점, 북한 교과서 400여 점 등도 함께 소장하고 있다. 또, 교육 관련 도서는 교육과정 해설서, 편수 자료, 각종 교육 보고서를 포함한 3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교복, 학용품, 교구재 등의 교육 자료도 2만여 점 등을 소장하고 있어 도합 20여만 점이 넘는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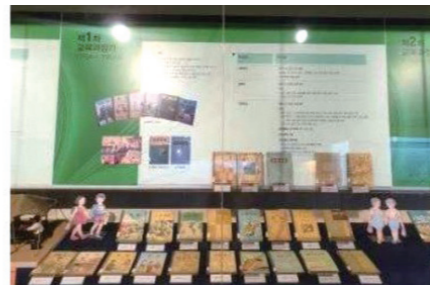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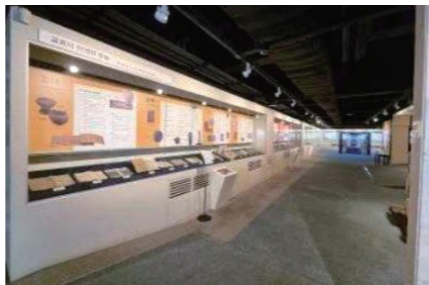
특히, 교과용 도서를 엄선해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중장기 사업으로 선정해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미 군정기의 교과서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까지 8천여 점의 교과용 도서 스캔 작업을 완료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교과서를 연구하고자 하는 분들께 열람 신청을 받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방문해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는 교과서의 열람을 한 후 예상보다 많은 자료를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어 경이로움과 만족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향후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합 1.5만여 점의 교과용 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국내에서는 유일무이하게 가장 많은 교과용 도서 자료를 전산화하는 커다란 업적을 남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교과서박물관' 열두 개의 테마로 운영

교과서박물관은 현재 박물관 건물 1층에 '교과서전시관'과 '인쇄기계전시관' 두 개의 상설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고, 건물 2층에는 '교육자료전시관'과 '기획전시관' 두 개의 전시관, 휴게실에 교육자료 특별기획전을 전시·운영하고 있다. 이들 전시관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전시관'은 1층에 위치하고 교과서박물관의 주 전시관에 해당되며 모두 열두 개의 코너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가장 앞부분에는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인 한글(모국어)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글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나랏말싸미·관'을 운영하고, 다음으로



는 교과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교과서역사관', 철수와 영이가 공부했던 옛날 교실을 재현한 '추억의 교실', 전문계 교과서를 소개하고 있는 '전문계교과서관', 특수학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교과서를 소개하고 있는 '특수교과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 ■ 국어 교과서를 주요 소재로 기획·운영

또,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는 발행사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어 교과서를 주요 소재로 기획·운영되고 있는 '국어교과서관'이 있다.

이 밖에도 세계 여러 나라의 교과서를 볼 수 있는 '세계교과서관', 북한의 교과서를 소개하고 있는 '북한교과서관', 교과서 개발 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교과서개발관', 첨단 미래 교육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미래교실관', 각종 교육 관련 자료를 소개하고 있는 '교육유물관' 등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해설서, 현행 교과서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들, 목활자 제조과정을 소개하는 코너도

한편에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전시관'의 출구는 교과서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미래엔이 발행하고 있는 국정, 검정, 인정 교과서를 소개하는 '미래엔교과서관'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교과서전시관'은 교과서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람과 체험을 통해 교과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 ■ '인쇄기계전시관' 운영

'교과서전시관'의 맞은편에는 '인쇄기계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인쇄기계전시관'은 주로 1950~70년대에 미라엔에서 교과서 제작에 실제 사용했던 인쇄 기계 및 인쇄 관련 설비가 전시되고 있다. 활자 제작, 조판, 인쇄, 제작에 이르기까지 인쇄에 대한 공정 전반에 걸친 기계 40여 점이 순서대로 전시돼 있다. 납 활자를 만들기 위한 원도에서부터 활자 자모를 조각하는 자모 조각기, 활자를 제작하는 자동 활자 주조기와 같이 활자를 사용하던 시대의 활자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사진이나 그림을 데이터화하는 스캔부, 촬영기 등도 전시돼 있고, 문자를 입력하는 입력기 등의 조판과 관련된 설비도 있다. 인쇄해서 교정·교열을 하기 위한 활판 교정기에서부터 본격 인쇄를 위한 활판 인쇄기가 전시돼 있으며 사철기, 철사기 등과 같은 제책 설비도 관람할 수 있다. 지금은 보기 힘든 과거의 각종 인쇄 기계 관람을 통해 인쇄 분야의 어제를 확인하고 오늘날의 선진화된 인쇄술도 함께 비교하며 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 '교육자료전시관'과 '기획전시관' 운영

교과서박물관 2층에는 두 개의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바로 '교육자료전시관'과 '기획전시관'이다. '교육자료전시관'은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해 전시하는 기획 전시 공간이다. 현재 전시관에서는 교육 관련 여러 자료 중에서 특별히 교과서에 수록돼 있는 삽화를 주제로 해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삽화 기획전 '삽화 여행, 교과서를 그리다'를 진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모두 손으로 그린 그림을 교과서에 넣었지만 근래에는 주로 컴퓨터를 이용해 그린 컴퓨터 그림(삽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처럼 학생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감정의 흐름을 살리기 위해 일부러 도화지에 붓 등으로 직접 그린 그림을 수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전시돼 있는 교과서 수록 삽화는 모두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들이다.

주로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것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읽기', '듣기·말하기' 또는 '듣기·말하기·쓰기', '쓰기' 교과서들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 '국어 활동' 교과서들의 손그림과 종이 공예로 만든 특수 삽화들이 전시돼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 교사용 지도서 표지 특수 삽화가 전시돼 있다.

전시돼 있는 손그림을 컴퓨터 그림의 느낌과 비교해 보고, 또 원래의 그림이 교과서에 어떻게 적용되고 표현됐는지를 확인하고 감상할 수 있다.

'기획전시관'은 교육 및 교과서와 관련된 여러 소재 가운데서 특별한 주제를 선정해 전시하는 특별 전시 공간이다. 현재 교과서에 등장하는 '놀이'를 주제로 기획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즉, 교과서를 통한 학습 활동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그중에서 특별히 놀이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요소를 선별해 전시했다.

어린음악대 놀이를 통해 음악적 감수성과 정서를 익힐 수 있으며, 나뭇잎놀이, 비눗방울, 바람개비, 물총놀이, 비행기, 자석놀이 등을 통해 자연현상 및 과학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또, 학교놀이, 운동장놀이 등을 통해 단체생활과 협동 의식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겨울놀이(눈사람 만들기, 연날리기 등)를 통해 자연과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공부할 수 있다.

특히 연날리기, 팽이치기, 널뛰기, 숨바꼭질 등의 전통민속놀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전통을 계승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놀이에는 무엇이 있으며, 오늘날에도 전승되고 있는 놀이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기회가 된다.

그밖에 2층 휴게실에서는 그동안 교과서박물관에서 수집해 보관하고 있던 교육 관련 자료 및 교육 유품들을 엄선해 '교육자료 특별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종이 '땡땡땡')이라는 주제로 과거에 활용했던 교육자료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교육의 변천과정을 이해하고 추억 여행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운동장 구석 햇볕에 반사된 모래를 조물거리며 두꺼비집을 만들고 깔깔거리며 웃던 너와 나의 환한 얼굴 감개 그을린 얼굴과 대조되던 벗들의 하얀 이 그 벗들은 지금 어디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는지...

교과서박물관 김동래 관장은 "교과서는 학창 시절 학교와 선생님, 친구들의 모습을 회상하는 매개체이다. 또한, 교과서는 공부를 해야 하는 부담감이기도 했지만 새 교과서에서 풍겨 오는 인쇄 잉크의 은은한 냄새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는 애뜻함이다"며 "교과서박물관에 오시면 유년시절 함께 운동장을 뛰어놀던 친구들이 손짓하며 다가오고, 난로 위의 양은 도시락과 낡은 책걸상의 교실이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 저 멀리 '철수와 영이'가 어서 오라고 손짓하며 부르고 있다. 우리들의 친구, 철수와 영이가 교과서 속에서 뛰어놀고 희색빛 추억의 교실이 있는 교과서박물관에 많이 방문해 추억과 그리움을 듬뿍 담아 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 A.T PROGRAM

## (AI + Touch My Dream)

"내 아이를 위한 아주 특별한 검사"

**M.I.T**  
마음지능검사  
(Mind Intelligence Test)

- 1 100가지유형 기질검사
- 2 자기주도학습태도검사
- 3 광점지능검사
- 4 성품검사

**M.E.T**  
마음에너지검사  
(Mind Energy Test)

- 1 유전자지문적성검사
- 2 학업스트레스검사

**With You Program**  
함께라면  
(With You Program)

- 1 진로프로그램
- 2 소통프로그램
- 3 마음알아주기 프로그램

# 대전교육청,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3개 학교 신설

### 가칭)용산2초·용계초·용계중 조건부 승인...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4월 25일 가칭)용산2초, 가칭)용계초, 가칭)용계중 설립에 대한 교육부의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가칭)용산2초 설립은 적정, 그 외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칭)용산2초등학교 신설사업은 2023년 제3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인근학교 소규모화 대책 및 부지교부 기준을 고려한 학교부지 해소방안 마련 보고 후 추진' 의견으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고 이

에 약 4개월간 이어진 감사원 적극행정 컨설팅과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건부 승인을 충족할 수 있는 이행계획 마련에 노력했다.

가칭)용계초등학교는 2026년 7월 입주예정인 도안2-3지구 공동주택과 분양예정인 도안 2-5지구 공동주택 등 도안신도시 내 개발에 따른 초등학교 배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가칭)용계중학교는 도안 2단계 및 갑천지구 전수 구역 개발사업 등으로 증가하는

학생들의 배치와 학교군 내 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이와 같은 학교설립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가칭)용산2초는 적정, 가칭)용계초와 가칭)용계중은 '도안지구 학교설립계획 보고' 의견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가칭)용계초, 가칭)용계중에 설립 조건에 대한 이행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하

여 가칭)용계초(27년 개교 예정), 가칭)용계중(28년 개교 예정)의 적기 개교를 목표로 학교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이번 학교설립은 도시개발에 따른 증가학생을 적정 배치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주택개발에 따른 학교신설을 적기에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우현호 기자 whh@

# 엄마, 아빠, 선생님과 나누는 사랑과 행복

### 대전문창유치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행복문창교육가족 체육대회

대전문창유치원(원장 박선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4월 26일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본원 3-5세 전체 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2024년 행복문창교육가족 체육대회'를 실시했다.

유아와 가족 간 협동심과 유대감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한 본 체육대회는 개인·단체·부모참여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랑됨, 행복됨으로 나누어 시작을 알렸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가마전'

, '줄다리기' 등 유아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유아 발달에 적합한 '50미터 달리기', '색깔판 뒤집기' 등 유아들이 활동하는 프로그램, 조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여 모든 가족이 웃고 즐길 수 있는 화합의 한마당이 되었다.

또한 이번 체육대회에 참여한 유아들은 "엄마, 아빠랑 선생님하고 함께 하는 달리기, 게임이 모두 신나고 재미있었어요", 학부모님과 교직원들은 "모처럼 동심으로

돌아가 웃고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으며 문창교육가족이라는 유대감을 가슴 벅차게 느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전문창유치원 박선자 원장은 "오늘 실시한 행복문창교육가족 체육대회는 유아, 교사, 학부모가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할 수 있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대전문창유치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우현호 기자 whh@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주관장학 첫 협의회

### 교사 전문성 신장 위한 자율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은 4월 25일 교실 수업 개선 및 효능감 향상을 위하여 동·서부교육지원청 주관장학 첫 협의회를 가졌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자율적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교사들이 요청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수 대성원경 교수, 부천대 박신영 교수, 한국침례신학대학 이춘자 교수, 김의성 변호사와의 협력으로 8회에 걸쳐 교사들의 자기주도

적 실행력과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정 누리과정의 철학적 기반 및 이론 탐구 등을 통하여 교사의 놀이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단위 활동별 단위 연령 및 혼합 연령에 따른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나눔 등을 하면서 교사 수준의 특색있는 학급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및 교권 보호 관련 연수와 선진지 등을 견학하며



실제 도움이 되는 체험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최재모 교육장은 "교사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갈 수 있는

참여 중심, 문제해결 중심의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우현호 기자 whh@

# 집단상담 통해 친구들과 깊어지는 교우관계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찾아가는 집단상담' 운영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 위(Wee)센터는 4월 26일 대전교초중등학교를 시작으로 6월 말까지 7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집단상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집단상담'은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서부 관내 초·중학교 7개교를 선정하여 외부 전문상담기관과 협력해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각 학교별로 한 학급을 선정하여 2주간 총 4회기 대면 교육을 진행하며, 각 회기는 희망 나무 만들기, 자화상 그리기를 통한 자기 탐색 및 자아존중감 향상 돕기, 감정 카드 발표하기, 매체를 활용한 자신 표현하기 등의 활동들로 구성된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교우관계 증진, 학교 적응



력 향상, 학교폭력 예방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찾아가는 집단상담'은 학생 및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2024년에도 모집 시작과 동시에 선착순 마감됐다.

이번 집단상담을 신청한 한 학교의 교사는 "올해 우리학교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집단상담에 참여하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친구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고영민 학생생활지원센터장은 "학생들이 즐거운 집단상담 활동을 통해 내면의 건강한 성장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배려와 지혜를 키워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따라서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뿐 아니라 나아가 미래 사회의 능동적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집단상담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우현호 기자 whh@

# 장애학생 초청 음악회로 예술적 감수성 쑥쑥

### 대전특수교육원, '2024 웃음가득 행복가득 음악회' 개최

대전특수교육원(원장 전서경)은 4월 26일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특수학교(급) 학생과 교직원 약 630명을 대상으로 '2024 웃음가득 행복가득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립중앙과학관과 연계하여 타악 퍼포먼스(잼스틱), 소프라노, 테너(박지오, 권순찬), 클래식 OST 연주(미래심포니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음악 공연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문화 예술 공연을 관람하고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적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진창희 대표(전 대전가원학교 학부모)는 십여 년간 장애학생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국립중앙과학관과 연계하여 좋은 공연을 개최해 왔다. 진 대표는 평소 양질의 문화 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장애학생을 위해 우수한 문화예술인의 재능기부 협조를 받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음악회에 참여한 대전해둔학교의 한 학생은 "평소 유튜브나 TV로 보는 것과 달리 큰 공연장에서 울리는 소리가 웅장하고 멋있게 보였다. 특히 잼스틱 난타 공연은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라며 "마음껏 웃으면서 즐기니 평소 쌓였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전특수교육원 전서경 원장은 "국립중앙과학관과 연계한 웃음가득 행복가득 음악회를 통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하며 마음을 챙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예술적 감수성을 지원하는 문화 예술 체험 기회를 늘리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우현호 기자 whh@

# 계약업무 효율 제고·지역경제 활성화

### 대전교육청, '학교장터(S2B) 교육' 실시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4월 25일~26일 이틀간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관내 계약업무 담당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장터(S2B) 교육'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학교장터는 한국교육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각 기관에서 필요한 물품, 서비스 등을 전용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현재 약 5,400여 개의 대전지역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이번 교육은 신규 계약업무 담당자도 학교장터 시스템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경험이 풍부한 학교장터 전문가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서 등 지역산품 우선 구매 교육을 진행하고 학교장터를 활용한 수의계약 방법,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약자기업 물품구매 방법 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윤석오 재정과장은 "학교장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전지역 경기회복을 위해 지역업체 우선구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우현호 기자 whh@

# 지사 및 대리점 모집

### 티에프메디칼 (주) 점주님만의 혜택

- 높은 마진율
- 노후대비
- 확 줄어든 재고부담
- 홍보 및 행정지원

관심 있으신 미래 점주님들은 아래로 연락처로 신청 바랍니다.

4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생명을 살리는 건 그 어떤 수술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티에프메디칼과 점주님들입니다.

## 언제 어디서나 즉시 사용 가능한 수동식 심폐소생기

# 생명을 살리는 시간 단 4분



### BIOTA-3 수동식 심폐소생기

## 전라남도 213개 (초·중·고) 학교 시범 설치

#### 교육시설 (초·중·고등학교)

전남 구례간문 초등학교, 담양창평중학교 외

#### 복지시설 / 경로당

서울강동 종합사회복지관, 증평군 신동리 경로당

#### 지자체 / 관공서

단양군청 산림복지과, 진해 군항제 외

COMPANY : 티에프메디칼(주)  
대표번호 : 1899-0971  
Tel : 031)941-0970  
Fax : 031)949-8445  
ADDRESS : 경기도 파주시 산남로 39(우. 10882)  
E-MAIL : tfmedical@naver.com

- Q 당신은 갑자기 일어나는 재난 사고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 A 수동식 심폐소생기(Biota-3)는 전문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청주여상, 자기 주도적 진로 탐색 추진

### ‘드림 서핑의 날’ 개최... 직업계고 개인별 맞춤형 직업교육 기회 제공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이병욱)에서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자기 주도적 진로 탐색 및 취업역량강화 행사인 ‘드림 서핑의 날’을 진행했다.

‘드림 서핑의 날’은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직업계고 학교 현장에 학점제가 도입되면서 학생들이 자기 분석을 통해 자기 주도적인 진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취업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스스로 제시하여 취업 진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의 꿈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드림 서핑의 날’은 학년별로 진로 목표를 단계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1학년은 ▲취업 능력, 취업 성격 탐색하기 ▲학과계열 선점검사 참여 및 해석 검사 ▲선 취업, 후 진학 비전맵 완성하기 ▲취업 상식 QUIZ 등으로 진행되었다.



2학년은 ▲MET 진로 전공 탐색 검사 및 해석 강연 ▲선 취업, 후 진학 구체화하기 ▲취업 실무능력 QUIZ ▲학과 및 계열에 맞는 캠퍼스 꾸미기 ▲진로 아바타 등으로 이루어졌다.

3학년은 ▲MET 진로 전공 탐색 검사 결과 개별 상담 ▲중소기업 가치탐색 ▲스펙을 뛰어넘는 이미지 메이킹 ▲실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드림 서핑의 날’은 학년별 진로 성격 검사를 실시한 후에 모든 학생에게 결과 해석 강의 및 상담을 제공하여 학생 주도적인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직업계고에서의 자신의 진로 목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욱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은 “학생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

들이 실력을 갖추고 스스로 성장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여상은 2026년 학교 신축 교사 완공을 앞두고 미래 산업의 인력 수요에 맞게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으로 학교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유기성 기자 ygs@

# “저학년 학생 언어 발달지원 충북이 최고”

### 윤건영 충북교육감, 아이성장 책임학교 수업 참관 현장 목소리 청취

윤건영 충북북도교육감이 26일 금천초등학교를 찾아 ‘아이성장 책임학교’ 수업을 참관하고 현장 목소리를 적극 청취했다.

아이성장 책임학교는 ‘지금은 아이성장 골든타임’ 프로젝트의 하나로, 초등 1, 2학년 학생의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을 책임 지원하기 위해 도내 64개교에서 운영 중이다.

금천초등학교는 아이성장 관찰 기간을 운영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의 발달상황을 섬세하게 살펴보고, 학생 맞춤형으로 아이성장 지원을 지원하고, 놀이학년제를 구성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학생을 1:1로 밀착 지원하기 위해 아이성장 튜터를 적극 지원하여 학교 수업 이해도 및 참여도를 높이고 급우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돕고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초등 1, 2학년의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을 집중 지원하는 아이성장 책임학교 놀이수업을 직접 경험 하며 아이들의 반응을 세심히 살폈다.

아울러, 학부모, 아이성장 튜터, 교사 등 학교 구성원과의 소통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아이성장 책임학교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과 협력방안 등을 모색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아이들은 각 시기에 맞는 적절한 자극과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달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충북교육의 품에서 온전히 성장하며 한 명 한 명이 빛날 수 있도록 최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 충북반도체고, 삼성마이스터고 장학생 선정

### 2학년 학생 17명 취업약정과 2년 동안 500만원 장학금 받아



충북반도체고등학교(교장 이병호) 2학년 학생 17명이 삼성마이스터고 장학생으로 최종 선정되어 반도체 대기업 취업으로 학생,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진로, 취업 교육을 실현했다.

이들은 취업 약정과 동시에 2년 동안 500만원의 장학금을 회사로부터 받고 졸업 후에는 설비직으로 입사하여 반도체 제조 장비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게 된다.

또한, 올해 3학년인 13명 학생들

도 작년에 선정되어 해마다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반도체 제조, 장비 대기업에도 취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충북반도체고는 취업 맞춤형 교육, 반도체 분야 선두 기업과 꾸준한 산학협력체결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영-마이스터 인증제>라는 학교 고유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은 ▲외국어 ▲정보화 ▲전문(자격증) ▲직업기초 ▲

직업의식 등의 5개 영역에서 인증 목표를 성취하여 반도체 기술명장의 꿈을 키우고 있다.

이번에 합격한 반도체제조과 2학년 남가현 학생은 “목표로 하는 기업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기쁘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어 행복하다”며, “평소 무뎠던 아버지가 네가 이렇게 잘 해낼 줄 알았다며 칭찬해 주셨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병호 교장은 “지난해 반도체 불경기에 불구하고 학교 공동체가 단합해 많은 졸업생이 우수기업에 취업했고 이번에 선발된 삼성마이스터고 장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반도체산업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교육할 것이며 명문 마이스터고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충북반도체고등학교는 마이스터고로 개교(2010년)한 이래 지금까지 95% 이상의 취업률을

이루어 왔으며 2023학년도 졸업생(2024. 1. 5.졸업) 109명 중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한화솔루션, 랩시치코리아 등 반도체제조, 장비분야 우수기업에 105명이 취업하며 우수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유기성 기자 ygs@

# 충북공고, 경제교육으로 취업 마인드 제고

충북공업고등학교(교장 김중식)는 26일 1학년 학생 240명이 참석한 ‘2024. 충북공고 취업 마인드 제고 특강’을 진행했다.

단아정 컴퍼니 최효련 대표가 강사로 초청되어, 경제 교육을 통해 현실적 경제관념 정립과 재정

운용 방법을 이해하고 취업 마인드 제고, 책임감 있는 합리적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상생활과 경제의 연관성, 경제적 무지가 가져올 심각성, 재정 관리 방안 등을 이야기한 후 합리적 진로 선택 및 취업의 필요

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중식 충북공업고등학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경제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본인의 삶을 깊게 고민한 후 진로를 선택했으면 한다. 또한 취업이란 진로 선택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 바다 무대로 치유와 힐링의 시간

### 해양교육원, 생명존중·치유 위한 해양 치유 캠프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해양교육원(원장 박종길)은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간 ‘2024년 해양 치유 캠프 1기’를 운영했다. 해양 치유 캠프는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 40명(기수별 20명)을 대상으로 총 2기수 진행되고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해양 치유 캠프는 학생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자연을 통한 체험과 힐링의 시간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자존감 회복, 건전한 또래문화 개선을 위해 마련되

었다.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를 방문해 생명의 소중함과 수산 자원 보존의 필요성을 느끼는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주요활동은 해양교육원에서 준비한 숨어 치어 방류 프로그램과 여항 만들기이다.

학생들은 스스로 어항을 꾸며서 만들고 ▲치어 이름 짓기 ▲치어와 대화하기 ▲치어 건강 빌어주기 ▲마지막으로 치어 방류 활동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가족과 친구의 고마움을 느끼는 의미 있

는 시간을 가졌다.

해양 치유 캠프 1기에 참여한 한 학생은 “답답한 학교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탁 트인 바닷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여 기분이 무척 좋았다. 어린 치어를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내가 직접 바다에 놓아 준 치어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종길 해양교육원장은 “해양 치유 캠프를 통해 학생들의 지친 마음이 위로되었으면 좋겠고 치어 방류, 여항 만들기,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견학, 자연을 통한 체험과 힐링의 시간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자존감 회복, 치유의 행복할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 교육도서관서 만난 지식과 열정

### 충북교육청 교육도서관, ‘통섭의 광장’ 인문 강연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도서관(관장 이종수)은 지난 24일 프리미엄 인문 강연 ‘통섭의 광장’이 성공적인 시작을 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지식을 넘어 세상을 읽다’라는 테마 아래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건축가가 강연자로 나서 ‘파빌리에 성당, 공간으로 세상을 읽다’라는 주제로 강연

을 펼쳤다.

MBC충북 공개홀에서 열린 이번 강연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해 성대한 지식의 장을 이루었으며, 참석자들은 유현준 건축가의 통찰력 있는 강연에 귀를 기울이며, 건축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인문학적 시각을 얻을 수 있었다.

‘통섭의 광장’은 매월 네 번째 수요일 저녁에 진행되며, ▲5월 22일에는 장대익 과학철학자 ▲6월 26일에는 신병주 건국대 사학과 교수의 강연 등으로 학문의 경계를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통섭적 사고의 시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종수 교육도서관장은 “앞으로도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지역 사회의 문화적 풍요로움과 도서관 문화 확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문 강연을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기성 기자 ygs@

## 사랑, 정성, 영양, 행복 가득 담아 아빠의 마음으로 만든 믿을 수 있는 건강한 ‘김’

엄선된 원초와 유산균 바이오 솔트, 아마씨유로 만든 어린이용 김

엄선된 원초와 유산균 바이오 솔트, 참기름으로 맛을 낸 김

엄선된 원초와 유산균 바이오 솔트, 올리브유로 만든 돌자반

쌀가루와, 참쌀분말로 만들어 더욱 바삭한 1등 영양간식 김부끄

HACCP FDA NAVER **아빠맘연구소** 검색 를 검색해 보세요!

# “환경을 지키는 과학의 힘 맘껏 펼쳐요”

### 화순오성초, 행복놀이와 함께하는 과학의 날 주간 운영

화순오성초등학교(교장 최연옥)는 4월 21일부터 4일간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행복놀이와 함께하는 과학의 날 주간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전교생이 AI, SW, 창의과학, VR, 탄소중립 실천 과학 등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학년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행복놀이를 중심으로 DIY 홀로그램 제작·체험, 업사이클링 과학·환경교육, 음악과 과학의 융합 수업 등 다양한 에듀테크와 융합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학생들의 창의력과 독창적인 프로젝트 수업의 기회를 제공했다.

학년별 행복놀이 주제 프로그램

으로 곤충의 세계 탐험(1학년), 진공의 원리 실험(2학년), 부엉이피리 제작으로 알아보는 소리의 세계(3학년), 기하도형이 갖는 과학적 비밀(4학년)을 통해 다양한 과학 분야의 이해를 높였다.

나아가 업사이클링을 통한 과학·환경교육(5학년), 홀로그램을 통해 살펴본 미래세계와 탄소중립 과학·환경교육(6학년)을 실시함으로써 일상 경험과 과학적 원리를 융합하는 실제 체험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라남도교육청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지원한 찾아가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교육은 과학이 가진 긍정적 효과와 역

할에 대해 학생들은 더욱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었다.

우리 지구가 처한 기후위기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과학적 방법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과제를 학생 스스로 세워봄으로써 미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기회를 가졌다.

탄소중립 지구 비누를 만들어봄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다짐을 공언하고, 학생이 스스로 제작한 환경보전 영상을 유투브를 통해 함께 감상하고 공유함으로써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도 전개했다.

행복놀이와 함께하는 과학의 날 행사에 참여한 6학년 김OO 학생

은 “걱정이 가득했던 지구의 기후 위기 상황에서 과학을 통해 다양한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환경을 위해 과학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올바르게 실천하는 꼬마과학자가 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연옥 교장은 “다양한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흥미로운 실험과 체험을 행복놀이를 통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나아가 학생들의 밝은 상상과 도전 정신이 무한히 펼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화순오성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영식 기자 2580news@daum.net

# 순천복초 “학생안전이 최우선이다”

### 순천소방서와 함께 학생 교직원 대상 합동소방훈련 시행

순천복초등학교(교장 허관태)는 4월 23일 오전 10시 40분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합동 소방 훈련을 시행했다.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화재 대피를 준비하고 교직원들은 학생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경로를 안내했다.

화재 발생 가정 상황 속에서 첫 발견자의 신속한 화재 신고를 시작으로 화재 발생 경보전파, 화재 대피 유도 등 화재대피 훈련, 비상 반출훈련과 화재진압 훈련, 인명구조 및 후송, 응급 복구, 소화기 사용법, 강평 순으로 이루어졌다. 비상 반출훈련과 화재진압 훈련, 인명구조 및 후송, 응급 복구, 소화기 사용법, 강평 순으로 이루어졌다.

경보기가 작동하자 학생들은 몸을 낮추고 손수건이나 손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입을 막으며 신속하게 이동했다.

질서정연하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에서 평소 순천복초등학교 선생님의 안전에 대한 지도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1학년 김 OO학생은 “불이 나면 무서운데 소방관 아저씨들이 와서 든든해요. 소방차가 물을 뿌려서 멋졌어요”라고 말했다.

순천복초등학교 교직원인 현지는 선생님은 “학생들이 소화기를 직접 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기대처 능력을 생각했고, 학생들이 실천처럼 하는 모습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의 지도 아래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피를 했다고 생각한다. 안전

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허관태 교장은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놀라지 않고 평소 실천처럼 준비하고 연습을 한다면 사고는 미미하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늘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양만열 기자 2580news@daum.net

# 함평영화학교, 마술과 풍선아트 공연

### 문화 예술 교육으로 소외계층 학생 혜택

함평영화학교(교장 박상래)는 학교 연계 청소년 문화 활동 프로그램으로 마술과 풍선아트 공연을 진행했다. 이 특별한 공연은 큰 인기를 끌었으며 학생들은 환호와 박수로 공연을 응원했다.

마술과 풍선아트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활동으로 학생들의 예술적 감각을 향상시키는 과

정에서 자신감을 키우고 즐거움을 느꼈다. 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얻으면서 자신에게 자신감을 주는 경험을 했다.

학교 연계 청소년 문화 활동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취미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함평영화학교에서 진행된 청소년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 계층 학생들이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고 문화 소외 계층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 경험과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했다.

홍석범 기자 2580news@daum.net

# 광양여고 축구부, 춘계한국여자축구연맹전 우승

### 결승서 포항여전고와 4-0 승리... 조혜영 선수 득점상 권영인 감독 최우수 감독상

광양여자고등학교(교장 주경중)는 지난 4월 11일~19일 강원도 화천군에서 개최된 '2024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에서 고등부 우승을 차지했다.

광양여고는 예선 조별리그에서 현대고에 2-0으로 패배하였으나 춘추예선여고에 3-1 승리, 부산동명공고와 9-0으로 승리하여 조2위로 8강에 진출했다.

8강에서 서울동산고에 8-0으로 4강에 진출, 준결승전에서 경기오산정보고에 6-1 큰 점수 차이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 만난 포항여전고와의 경기에서 전반 6분, 한민서가 패널티킥으로 골을 넣으며 선취 득점을 하였으며, 전반 20분 안수정, 전반 35분 진혜린의 골로 3-0으로 앞서나갔다.

수비에서 무결점을 유지하며 상대팀의 공격을 차단하고 후반 30분, 진혜린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하여 4-0으로 우승을 확정 지었다.

6경기 30득점 4실점으로 훌륭한

한 경기력을 보여준 광양여고는 조혜영 선수가 득점상, 권영인 감독이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했다.

주경중 교장은 “올해 첫 전국대회를 우승으로 시작해서 기쁘고 작년에 이어 올해 좋은 가능성을 보여준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감사하며, 우리 학교가 한국 여자축구의 정상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서육란 기자 2580news@daum.net

대표 고객  
TEL 061 - 333 - 7942  
H.P 010 - 6630 - 4592

# 서영푸드

이런 분들에게 좋아요!

- >. 기업체 위탁 급식
- >. 학원, 약국, 병원, 사무실
- >. 야유회 및 각종 행사 도시락
- >. 나눔교실 도시락

나주시 아동급식 우수업체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 위탁 급식업체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정성을 다해 담았습니다.

# “장애인 불편 해결 함께 고민하자”

### 해남동초, SW 융합 해커톤 대회 개최



해남동초등학교(교장 하영일)는 지난 4월 25일 5~6학년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남동 SW 융합 해커톤 대회'를 개최했다.

해커톤이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특정 장소에서 특정 문제에 대해 일정 시간 동안 함께 해결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번 대회는 4차산업과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여 정보 교육의 기초를 다지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융합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일상생활 속에

서 불편함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작품 구상하기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이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게 목표였다.

황지선 교사는 “이번 해커톤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미래의 핵심 인재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인 협업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SW 융합 해커톤 대회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학교 내 SW 교육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해남동초등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몰입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병희 기자 2580news@daum.net

# 기후 위기 극복 “우리가 나선다”

### 목포교육지원청, 탄소중립 실천행사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대성)은 4월 24일 목포하당 일대와 해양유물전시관 부근에서 2024. 탄소중립 실천행사를 실시했다.

목포교육지원청은 매년 탄소중립 실천행사를 계획하여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 의지를 강화하고, 지속활동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2024. 목포교육지원청 탄소중립 실천행사로서 ▲탄소중립 자체선언

식 ▲분기별 플로깅데이 ▲아름다운가게 연계 자체 기부캠페인 ▲도보출퇴근, 1일카풀 ▲ 채식식단 공유활동 등을 계획하여 실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플로깅데이에는 플로깅활동구역에 도심·상가밀집 지역, 문화재밀집지역으로 각각 설정하였고, 해당 구역을 플로깅 활동 참여 직원들이 두 팀으로 나눠 밀착 전담 활동을 하여 지역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활동을 지켜보던 한 지역민은

“목포교육지원청은 목포하당구의 주요기관으로 매년 지역사회 기여활동을 실시하여 마음이 흡족하다”면서 “같은 지역민의 일원으로 목포교육지원청이 꾸준히 모범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대성 교육장은 “이번 목포교육지원청의 탄소중립 실천행사 선포식과 플로깅활동 등 우리의 작은 습관 변화와 행동은 지역 생태계와 더 나아가 나라와 지구의 기후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주기적인 탄소중립 실천행사를 실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 울산수학문화관, '제1차 수학 대중화' 강연

### 이세돌 전 프로기사 초청... 천창수 교육감, 참여자들과 바둑 기반 보드게임 대국도 펼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 산하 울산수학문화관(관장 하인숙)은 4월 24일 오후 울산시교육청 의술회의실에서 '제1차 수학 대중화 강연' 행사를 열었다.

'수학 대중화 강연'은 일반인들이 어렵고 딱딱한 학문으로 인식하기 쉬운 '수학'의 중요성과 우리 일상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깨닫아 인식의 폭을 확장하고자 수학문화관이 마련한 행사이다.

특히, 지역에서 만나기 어려운 명사나 전문가를 초빙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1차 대중화 강연의 강사는 2016년 구글 딥마인드(DeepMind)의 인공지능 알파고와 바둑 대결에서 유일하게 1승을 거둔 이세돌 전(前) 프로바둑기사이다.



2019년 바둑계를 은퇴하고 보드 게임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세돌 전 프로기사는 이번 강연에서 '보드게임과 수학적 추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 이야기에

서 시작한 강의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인간과의 관계, 우리가 인공지능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앞으로 미래 세대를 살아갈 학

생들의 사고력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하나로 보드게임 활동도 제안했다.

이날 강연에서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참여자들과 바둑 기술에 기반한 보드게임 대국을 펼치며 수학적 추론을 직접 경험했다.

강연에 참석한 한 교사는 "2025년 도입 예정인 디지털 수학 교과서와 인공지능을 연계한 학습지도 방법을 구체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교실 수업에서 보드게임과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수학적 사고력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지도할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 천창수 교육감 "학생자치회 중심 활동 지원"

### 울산교육청, '제11회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 열어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지난 4월 25일 시교육청 집현실에서 고등학교 학생자치회 회장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 행사를 열었다.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고등학교 학생자치회 회장과 만나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을 두고 소통했다.

학생자치회는 단위 학교의 학생 전체를 대표하는 자치 기구로 각종 행사를 기획·진행해 건전한 학교생활과 여건 개선에 힘쓰며 학생의 의견을 대표해서 학교에 전달하는 기구다.

이날 천 교육감은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마찰했을 때 학생회 차원에서 이를 예방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말해 달라"라고 물었다.

이에 한 학생회장은 "선생님과 학생이 마찰했을 때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해당 학생에게 그만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학생회가 주도해 다양한 행사를 열어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답했다.

이어 학생들은 학교 현안 사업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 탈의실 설치 등을 요청했다. 대학 진학과 관련해 학교 학생의 고충을 전달하기도 했다.

천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현안 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시·군·구의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생자치회 중심 학생 자치활동으로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울산교육청은 매일 교육감이 시민과 직접 만나 울산 교육정책을 설명하고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 행사 참여 희망자는 시교육청 누리집(<https://use.go.kr/soe/user/bbs/BD>)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전자우편([usesotong@korea.kr](mailto:usesotong@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병선 기자 kbs@

## 울산교육청, 교원 개인정보 보호 업무 역량 강화

### '개인정보 보호 업무 길잡이' 제작 각급 학교·기관 보급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4월 26일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최근 '개인정보 보호 업무 길잡이'를 제작해 각급 학교와 기관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연간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124쪽 분량으로 만들었다.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절차, 개인정보 파일 정비 등을 13개 항목으로 배치하고 항목마다 근거, 업무 시기, 방법, 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업무 길잡이'는 각급 학교와 기관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를 위해 시교육청 업무 담당자가 직접 제작했다.

울산교육청은 4월 25일 울산과 학관 비백홀에서 전 학교와 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290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울산교육청은 학교와 기관에 보급한 '개인정보 보호 업무 길잡이'를 토대로 연간 개인정보 보호 업

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교육 이후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보관 수집하도록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서식 상담(컨설팅),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맞춤형 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해 업무용 PC에 불필요한 민감정보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업무상 꼭 필요한 개인정보는 암호화할 수 있도록 재정도 추진하고 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울산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개인정보 업무에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학생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전 기관과 학교에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 울산교육청, 꿈키움멘토단 상담 역량 강화 지원

### "마음을 여는 대화법으로 아이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는 계기 마련"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4월 24일 꿈키움멘토단의 상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꿈키움멘토단은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게 자신의 경험담과 조언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 성격의 활동이다.

울산교육청은 올해 꿈키움멘토단으로 상담·진로 전문가, 강사, 전문상담사, 학업 중단 위기 극복 경험자, 전문직업인 등 28명을 구성했다.

23일에는 시교육청 집현실에서

꿈키움멘토단 멘토 28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꿈키움멘토단의 자질과 전문성을 키워 학생(멘티)에게 효과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다함께행복센터 유재희 센터장을 초청해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대화법'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마음을 여는 대화법은 학생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치를 믿고 감정과 행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

꿈키움멘토단은 지난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학교 부적응·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멘토링) 활동과 학업중단속려제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학업, 진로상담, 정서적 지지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마음을 여는 대화법으로 아이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멘토단의 역량을 강화해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의 마음 건강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 울산강북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소통·공감 나눔

### 황재운 교육장 "직원들에게 힐링의 시간 제공"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황재운)은 4월 26일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강북지역 유·초·중·특수학교 지방공무원 80여 명

을 대상으로 치유(힐링) 연수 '소(소통으로)확(확장되는)행(행정역량) 나눔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방공무원 간 소통과 공감으로

유대감, 소속감을 높이고,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해 재충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모의전투 게임

을 하며 친목을 다졌다. 이어 보문호수 둘레길을 걸으며 담당자 간 소통하며 업무 지식을 공유했다.

황재운 교육장은 "바쁜 업무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에 휴식이 필요한 직원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해 건강하고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오혜영 기자 ohy@

**TeBiBOX**

**테비박스 하나면 충분합니다.**

**미래형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테비박스**

# “경남 서부권에 독서 문화 꽃핀다”

### 진주북합문화도서관 첫 삽...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2026년 상반기 개관 목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4월 25일 진주시 충무공동 184번지 일원에서 기공식을 열고 경남 서부권에 독서 문화를 꽃피울(가칭)진주북합문화도서관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도서관 건립은 경남교육청·진주시·한국토지주택공사(LH)·경상남도가 경남 서부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선진 독서 환경을 만들고자 손을 맞잡은 사업으로, 경남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과 진주시가 운영하는 문화관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이다.

도서관은 총면적 4,357㎡,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유아·어린이 자료실, 종합자료실, 문화 강좌 공간, 자유 열람 구역 등을 갖춘다.



특히, 청소년 전용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정체성을 더했다.

도서관은 2년여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며, 경남 서부권 독서 정책의 중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착공식에는 박상우 국토교

통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조규일 진주시장, 국회의원, 시민 등 150명이 참석했다.

경상남도의회 출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박종훈 교육감을 대신해 오영문 학교정책국장은 환영사

에서 “(가칭)진주북합문화도서관은 도민의 내일을 짓는 경남교육청 역점 사업으로 기대가 크다”라며, “서부 경남의 중심도시 진주에 독서 문화의 꽃이 만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상도 기자 psd@

# 부산교육청, ‘해양스포츠 늘봄학교’ 운영

### 국립부경대 등 6곳과 업무 협약...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다양하고 내실 있는 부산형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와 전방위적 협력에 나선 부산시교육청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4월 25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해양스포츠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한 시교육청 관계자, 국립부경대학교·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부산광역시 서평협회 등 부산지역 해양 관련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단체)은 협약을 통해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 우수 한 전문 체육지도자 지원, 학생 안전방위적 협력에 나선 부산시교육청 운영 전반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학들은 해양스포츠 프로그램 관련 전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회원종목단체는 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 강사, 해양 종목의 특성을 살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스포츠 프로그램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교육청은 부산형 늘봄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과 성공적 정착, 학생들의 건강 체력 증진과 바른

인성 함양, 전문 체육 인력을 활용한 해양스포츠 늘봄학교 운영 등에 이번 협약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내실 있고 전문성을 갖춘 해양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늘봄학교를 만드는 데 협약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지난 4일 견기협회, 농구협회 등 31개 회원종목단체와 ‘스포츠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정현 기자 ljh@

# 제4회 자유대한민국희망연대 대상 시상식 개최

### 2024한국미시즈시니어모델선발대회 대구수성호텔 컨벤션홀서 성료

제4회 자유대한민국희망연대 대상 시상식과 함께 제4회 2024 한국미시즈시니어모델선발대회가 자유대한민국희망연대 주최하고 더뉴스코리아가 주관한 가운데 4월 25일 오후 2시 대구 수성호텔 컨벤션홀에서 많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1부 자유대한민국희망연대 대상 시상식과 2부 한국미시즈시니어모델선발대회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김성근 자유대한민국희망연대 중앙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라인댄스공연단, 팝페라 가수 배은희의 벨라판타지의 노래로 행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어 대상 시상식에서 환경보전 봉사대상에는 박주덕 야생동물보



존복원협회 경북지부장, 교육공헌 대상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장의 융합교육원 창의환경교육지원단 박수중 단장이 많은 내빈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자유수호공헌대상에 파호로 포럼@CUCI한민호 대표, 기업경영대상 수성메디칼센터 김중호 회장, 모델문화대상에 시니어모델 장수자, 심종섭, 사회봉사대상에 인천

교육정상연합회 공동대표 한순남, 기업경영혁신대상에 내추리리플러스 조연화 대표, 국제민간외교대상에 김화창 박사, 이방석 박사, K뷰티퍼워브랜드대상에 이승렬 대표, 문화예술대상에 맥무용 정현정 단장, 여성뷰티트렌드대상에 와키브라수석바스트 김지혜 디자이너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날 교육공헌대상을 받은 박수중 부산광역시교육청장의 융합교육원 창의환경교육지원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유대한민국희망연대에서 상을 받아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다. 함께한 모든 분들께 영광을 돌리며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겠다. 나의 조그마한 힘이라도 부산교육청에 바쳐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정현 기자 ljh@

# 민주평통 부산남구협의회, 세대 공감의 통일 대화

### 포리에 꼬리를 무는 통일 이야기 ‘with 따뜻한 이웃사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남구협의회(회장 박종훈)는 4월 15일 오후 5시 오륙도 해파랑카페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통일 이야기-제3탄 with 따뜻한 이웃사촌(탈북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대부터 70대까지, 그리고 탈북민까지 함께한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에 함께 살고 있는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통일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의 시간이 됐다.

박종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남구협의회장은 “지난 2월 23일과 3월 25일에 이어 오늘 개최된 꼬리를 무는 통일이야기-제3탄은 특별히 탈북민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준비했다. 민주평통은 통일여론을 수렴하고 통일공감대



확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북한 이탈주민 멘토링 활동을 준비하고 있음을 전해, 이번 행사를 통해 남북간 그리고 세대간 마음과 마음을 잇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황00 탈북민은 북한사회의 모습과 남한 정착과정을 듣고 북한 사회를 열고, 손수 빛은 아바

이 순대, 속도전 만두, 가지미 식혜, 두부밥 등을 나누어 먹으며 평화통일에 대한 생각을 정립해 보고 본인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탈북민 멘토링 사업 준비과정 공유와 세대를 넘어선 대화를 통해 세대간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황유규 기자 hog@

# 기상·기후업무 분야 진로·직업 체험

### 하윤수 부산교육감, 부산지방기상청과 업무협약 체결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4월 23일 오전 10시 20분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부산지방기상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하윤수 교육감, 이은정 부산지방기상청장 등 업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협약은 고등학생들에게

양질의 기상·기후업무 분야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상·기후업무 분야 진로 체험 프로그램 참가 학생 모집·소요 비용 지원 ▲전문 직업인 멘토 섭외·체험 공간 제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자원 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동참해 주신 부산지방기상청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ljh@

# 효율적 학교업무 경감 방안 찾는다

### 부산교육청, 학교업무 경감 효율화 아이디어 공모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5월 20일까지 시교육청 소속 기관(부서)·학교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월 25일 밝혔다.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이번 공모

전은 학교업무 경감에 기여한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업무를 줄이고, 교육활동 중심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부산교육청은 ▲학교현장 적용 결과 일반화할 가치가 있는 ‘우수

사례’ ▲업무 효율화·자동화 프로그램·학교 업무분장 모형 등 ‘아이디어’ 2개 분야 공모에 나선다. 참가 희망자는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 공모전 팝업창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접수한 자료를 서면 심사, 현장검증(우수사례만 해당) 등 과정을 거쳐 최우수 1팀(명)·우수 3팀(명)·장려 6팀(명) 등 10팀(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정현 기자 ljh@

## 히든보청기 부산지사

금정구지사 / 동래구직영점 / 남구직영점 / 진구직영점

### 히든보청기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귀하의 귀는 귀합니다! 대한민국 1등 보청기!!

히든보청기의 청각장애 흡서비스

**청각장애인지 가능성 검사**

청력에 어려움이 있으신 난청자들에게 방문하여 청각장애인지 가능성을 도와드립니다.

**보청기 구입상담 & 피팅 서비스**

전문 보청기관리사가 청각장애 판정 후 판정여부에 맞춰 보청기 구입을 도와드리며, 거주 공간에 방문하여 보청기 소리조절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정기적인 안내전화 및 방문을 통한 피드백**

보청기 사용을 잘하고 계시는지 정기적으로 안내전화를 드리며 문제가 있을 시 방문을 통하여 보청기 사후관리를 도와드립니다.

**보청기 구입상담 & 피팅 서비스**

보청기 전문가에게 상의하세요 (전문 청각사)

청각장애지원센터

## 히든보청기

히든보청기 부산지사 (대표 정영한)

▶ 방문상담 / 방문AS / 방문제작 / 보청기 죽가지원

☎ 대표전화 : 051-931-5209





생태환경교육



아침간편식



생태환경교육



전교다모임활동



스포츠클럽



주제체험학습

# 자연이 함께 하는 학교... 체험이 가득한 학교

## 전남 강진 도암초등학교



김옥분 교장

지난 1월 100회 졸업생을 배출한 전남 강진 도암초등학교. 현재 6학년 2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농산어촌유학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현재 1학년 1명, 4학년 1명, 6학년 1명, 총 3명의 학생이 경기도 남양주, 경남 김해에서 전학을 와 있다. 그만큼 학생 정서 안정과 자기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간. 한 학생이 "선생님, 아침을 안 먹어서 배가 고파서 공부를 못하겠어요."라는 한마디가 발단이 됐다.

도암초등학교는 바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먹고 학교를 오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3분의 2가 넘는 학생들이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학교는 바로 아침 간편식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학교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제공하는 업체를 통해 시리얼, 소시지, 과일 등 다양한 종류의 간편식을 구입해 매일 학생들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했다.

2022년과 2023년을 거쳐 현재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아침 간편식 지원 사업비를 받아 일주일에 3번은 친환경 식품(간편식)을, 2번은 김밥, 떡 또는 샌드위치 등의 특별식을 제공하며, 시기에 맞춰 학교 텃밭 수확물(감자, 옥수수, 토마토 등)을 제공하고 있어 학생 및 학부모들의 큰 성원을 받고 있다.

### 마을학교 연계 생태환경교육

도암초등학교는 지역의 마을학교(도암 힐링 원예 센터)와 연계하여 3년째 원

예 활동을 통한 생태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년군별 연간 16시간을 편성해 매년 봄이 오면 텃밭에 식물을 심을 준비를 해 각종 씨앗과 모종 심기, 가꾸고 관찰하기, 수확하기 등 다양한 노작활동으로 노동의 가치를 알고 생태감수성과 생명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기르고 있다.

또한 학교 텃밭에서 직접 심고, 가꾸고, 수확한 각종 채소 등 농작물을 사랑 나눔 바자회를 통해 교직원 및 학부모에

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탄소중립 학교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수영교육

도암초등학교는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영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전학년 연간 10시간의 생존수영(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포함)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을 '수영의

진행하고 있다.

또한 수영 선수 육성을 위한 수영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매일 2시간, 여름·겨울 방학 중 2주간 집중 훈련 기간을 통해 선수를 육성하고 각종 수영대회에 참가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 놀이활동 활성화 및 스포츠클럽 운영

도암초등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즐겁게 뛰놀고, 즐거운 마음이 학습까지 이어져 학습의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VR 스포츠 체험실, 펌프, 자전거, 트램펄린 등 다양한 놀이 활동 거리를 갖추고 있다. 또한 중간놀이시간(40분), 점심시간(1시간)을 확보하여 풋살, 티볼, 걷기 활동 등 전문 스포츠 지도사의 지도하에 다양한 스포츠 클럽 활동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 다양한 주제별 체험학습

도암초등학교는 다양한 주제별 현장 체험의 기회를 통해 교실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꿈과 끼를 가꾸며, 사고력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직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국립광주과학관으로의 전교생 봄 현장체험학습을 비롯해, 글로벌 미래 교육 박람회 체험학습, 순천만 습지 및 생태교육원 체험학습, 수원화성을 비롯한 서울·경기도 권역으로의 도시문화 체험학습, 뮤지컬, 드론, 특수분장 등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알아볼 수 있는 진로체험학습,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SW체험학습 등 다양한 주제 체험학습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가는 우리 학교

도암초등학교는 전교 다모임 활동(도담도담 도담초)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학교에 대한 애정으로 학생 주도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매월 1회 정기회 및 주요 안전 논의 시 필요에 따라 수시 운영하고 있으며, 추억의 날(학기별 1회) 및 아침 간편식 지원 사업, 각종 캠페인 활동, 지역사회 나눔 활동 등 다양한 행사 운영에 있어서 계획 수립 단계부터 행사 추진, 정리·마무리 활동까지 학생들이 주도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운영하고 있다.

이용호 기자 2580news@daum.net

## 농산어촌유학 전개... 자기개발 등 도모 아침 간편식 지원 통해 건강한 성장 도와 수영장 적극 활용... 수영 꿈나무로 키워

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활용해 지역사회 요양원 등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선물을 구입하여 드리며 더불어 사물놀이, 장기자랑 등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현재 전 세계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이

날'로 정해 2시간씩 학년군별로 돌아가며 학생 수준에 맞춰 자유형, 배영 등 영법 위주의 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주 목요일 방과후 수영반에 전교생이 참여하여 물과 친숙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물놀이 활동을 통해 체력 및 건강증진, 공동체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GLO

# 2024 대한민국

# 글로벌

# 미래교육

# 박람회

5. 29. 수 ~ 6. 2. 일

여수세계박람회장

미래교육 콘퍼런스

미래교육 전시

문화예술 교류

미래교육 축제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